

성도의 벗

6

“Sôngdo-wi Bôt”



목 차

선교부장 말씀	(裵 一文).....	2
대관장 말씀	(데이비드 오 맥케이)...	4
제 137 차 년대회에 다녀와서	(이 호남).....	10
이것이 몰몬이다	14
청운동 7 번지를 찾아서.....	(이 영환, 김 성욱).....	20
하나님 뜻으로 살자.....	(차 중환).....	24
선교사 초대	(카터).....	26
족보를 찾자	(김 사원).....	28
역원을 찾아서	(김 석모 형제편).....	30
시.....	(롯데 키플링).....	34
지부, 선교부 소식	36
습속으로본 한국	(裵 一文).....	40
한국을 떠나면서	(썬슨스).....	42
상향회 차지	44
성도의 벗 퀴즈.....	(편집실).....	48
찬송연습(8월분 주일 학교용)	(편집실).....	49
지방 대회 중계.....	(편집실).....	50
유치원 차지	(이 순애).....	53
멀리있는 성도들	(김 태선).....	51



표지설명 : 험프리 레인스 作 울릉도 사람

제 2 회 배일문 상시모집

1. 취 지

말일성도의 영적인 발전과 정서적인 발전을 꾀하는데 있다.

2. 대 상

침례를 받은 말일성도이어야 한다.

3. 응모 기간

1967년 8월 10일 선교부 도착분에 한함.

4. 심사 규정

- 1) 말일성도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신앙적이고 교회 의 이상이 의미중에 담겨 있어야 한다.
- 2) 한국의 전통, 풍속과 한국인의 이상이 의미중에 담겨 있어야 한다.
- 3) 심사는 사회의 권위자에게 위촉할 것임.

5. 응모 요령

- 1) 200자 원고지에 쓸 것.
- 2) 이름과 지부명을 명기하되 별지로 해서 동봉할 것.

6. 부 상

- | | |
|--------|-------------------------------|
| 1등(1명) | 가족표지 물문경 1권, 성도의 벗 1년분과 1000원 |
| 2등(1명) | 물문경 1권, 성도의 벗 1년분과 500원 |
| 3등(1명) | 성도의 벗 1년분과 500원 |

7. 응모 장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장

※ 봉투 하단에 “배 일문상 시모집 원고 재중”이라고 명기할 것.



나는 나의 운명의 주인

宣敎部長 裴 一 文

● 육신의 유산의 소치로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약점에 약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아킬레스의 뒷꿈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저나름의 약점을 갖고 있으며 잘못 관리하면 이러한 약점은 사람을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갑니다.

서로 성향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정도가 낮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거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몹씨 괴팍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험스러운 만큼 지각이 없고 경솔합니다. 혹자는 지식을 갖추었으며 게으르게 삶을 허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망과 근면을 갖추었으며 저속한 음악, 예로틱한 그림, 삶의 관능적인 면 등에 집착하는 습은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복음을 공부한다던가 언어를 공부한다던가 하나님의 영의 깊은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껍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자기 자기 특유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 스스로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할 뿐입니다. 때때로는 이러한 약점에 너무도 실망이 되고 구토가 나서 흔히 이러한 약점의 존재를 수긍하려 하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에게 조차 감추려 합니다. 사람은 그러한 약점을 무시해 버리거나 덮어 버리려 하며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신기한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주 스스로의 결함을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자신에게 묻습니다만 그 약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생애의 어느 특정한 시기, 어느 특정한 곳에 존재한다고 할때 다른 시간이나 처소로 전전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약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약점이 어떠한 불평도 야기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하거

나 설령 불만을 야기시킨다 하더라도 그 해결을 추후로 지연시킬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우리들에게 이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솔직하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결함을 외면하지는 못합니다. 언젠가 이와 싸워서 쫓아내던가 박멸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결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리 저리 밀려다니는 지하 감옥안의 도구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며 우리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영원한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은 있어서 만일 우리의 의지만 강하다면 생애의 온갖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윌리엄 헨리의 시에서 커다란 위안을 느끼던 나의 간증을 이 시로써 대신 하고자 합니다.

極과 極을 이어

나를 뒤덮은 흑야의 심연에서
나는 나의 불굴의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맹혹한 환경의 발톱속에서도
나는 위축되거나 혹은
소리내어 울지 아니 하였고
호된 매질로 인하여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나는 굴하지 아니 했노라.

이 분노와 눈물의 땀 너머
어둠의 공포와 위협의 세월이
기다린대도
보라, 나는 결코 겁내지 않으리.

문이 얼마나 좁으나
두루마리의 형벌이 얼마나 무거우나
하는 따위는 결코 문제되지
않는 것은
나는 나의 운명의 주인
나의 영혼의 대장임이라.

《예언자 말씀》

복음교사의 기회와 책임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가르치는 직분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높은 차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젊은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가정의 깨끗함과 영속성에 필수사항이며 국가 안전과 번영의 관건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살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만 교사는 그들의 훌륭한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동시에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능력의 부모를 진정한 의미의 부모와 교사의 직분을 겸한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규범과 사회의 요구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훌륭하게 살도록 교육한다는 문제는, 전부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가 부모로부터 교사로 옮겨진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보통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교사는 정신을 단련시키고 가치있는 습관을 권장하며 지각있는 부모의 가르침과 실제 행동을 본보기로 고상한 개성을 함양시키는등 부모의 협조자로서 족합니다. 그러나 한편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보면 부모의 단순한 협조자의 위치를 탈피하여 그들에게 훌륭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연마시키는 양 부모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에 열거한 조건을 모두 수행하면 일단 충분한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때로 그릇된 가르침이나 무책임하고 지각없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릇된 넷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뼈뿌러진 면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에도 직

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명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가르친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며 그 가르침의 결과 여하에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사실은 명백해지지 않을까요?

「인류의 통치에 대한 법을 고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국의 운명이 결국은 젊은이들의 교육에 달려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일반적인 목적은 학생 개개인의 육체적인 면, 지적인 면, 영적인 면의 정상적인 발전을 꾀하여 장차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만한 자기 가치를 배양케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라는 원대한 목적은 참다운 교육이라는 기초위에 비로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참다운 교육

그러면 참다운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다. 의무감을 느끼도록 자극하는 것이며, 인생의 의의와 위대한 목적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을 뜨게하는 것이다. 그것은 관념상의 이야기기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단순한 격언이 생활에 필요한 원리라고 전하는 것 만도 아니다. 정직을 가르치는 뜻이 「“정직은 제일 좋은 방편”」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

기 때문이어야 한다. 인간에게 선을 선행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덕이 마음의 바닥에서 일어나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교육, 조금도 두려운 감정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개성을 믿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교육이다.」①

교사가 사회의 발전과 이상에 지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여러 학식있는 사람에 둘러싸여 서 있는 젊은 그리스도를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그분의 육체적인 힘, 지적인 활기, 도덕적인 아름다움과 영적인 열정을 한데 묶어 표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이상의 원형입니다.

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위의 그림을 그린 화가가 사용한 붓과 캔바스를 쥐고 완전한 젊은이의 상을 재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없다고요! 자신은 기술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못했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화관에 이상적인 젊은이를 그리지는 못한다 하여도 자기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젊은이에게, 전에 가지고 있던 삶이 만일에 그를 것이었다면, 그것을 청산하여 무

결한 개성의 영혼을 호흡할 수 있게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라

그러나 교사의 책임이 진리에 대한 확신만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끝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서는 안 될 부분에 까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인간의 영혼이라는 정원에는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력이라는 아름답고 쓸모있는 꽃과 나무가 있는가 하면 가시와 엉겅퀴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린이의 마음 속에 깃든 진리의 꽃을 몰아내고 대신 악의 씨를 뿌리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위대한 교사 중의 교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6)

개인이 완전히 이르는 여행에 아무런 목적의식도 갖지 않고, 또는 민족의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으며 그저 역사, 문학, 과학, 예능에 관한 몇 가지 죽은 사실을 전하고 그것의 댓가로 매달 보수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방해물로서의 돌맹이 구실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녀를 마진 부모에게서는 자

녀의 지도는 물론 영적인 발전까지도 돌보아 줄 것이라는 신임마저 받고 있는 그들은 매일 젊은이의 마음과 정신 속에 독소적이며 반항적인 사고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며 젊은 남녀에게 부도덕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만일 위대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부류의 범죄자들이 혼장을 수여한다면 그것을 받기에 족한——을 숙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부모나 교육 지도자들이 우선 작성해야 할 것은 선량한 시민이란 개개인의 개성의 발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머슨이 갈파한 「지성 보다 높은 개성……위대한 사람은 사고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생활에도 강하다.」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교사가 교육의 진정한 목적을 개성의 개발, 발전이라는 점에 두고, 바로 그런 결과를 진심으로 염원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실제 행동으로 그런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사는 자신이 학생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똑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의 가르침은 알맹이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과 권고는 「소리나는 꾀과리」에 불과합니다.

차원높은 도덕적인 표준에 필연적인 결과로 따라다니는 고결한 삶의 영

위는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교사가 이루어 놓아야 할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이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교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책임이나 직분은 일반 학교 교사 보다 더 높다고 하겠습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의 효용성을 믿는 이외에도 복음 교사는 이들의 영적인 영역에까지 간여하여 선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무는 맹아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는 혀, 흐르는 개울에는 책, 들에는 설교, 모든 것이 좋도다.」②

고독과 기아의 미로에서 방황하는 영들을 현세라는 미궁에서, 감각적이며 물질적인 면에서 영적인 장소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영광에 찬 성취라고 하겠습니까?

참다운 교육자

젊은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의 율법을 믿으며, 그분을 믿는 확신으로 사랑과 위안을 찾도록 인도서는 일 등은 참다운 교육자에게 주어질 가장 위대한 특권임과 동시에 숭고한 기회입니다.

유타주 원타시 버달읍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에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혹은 걸어서 혹은 차

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하나도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개의 큰 바위가 크거나 모양이 같아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굉장히 끌 것도 같았지만 새로운 개척지를 낙원으로 만든다는 번거러움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역시 그것이 바위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어느 날 카네기 재단의 후원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 하나가 같은 언덕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위를 보자 대뜸 아마도 이 바위는 역사상의 시대 구분으로 쥘라기에 속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는 또한 이와 같은 지층에서 한때 땅 위에 군림하던 큰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읍니다. 그러면 농부와 소치는 사람, 소위 개척자들에게는 평범하게 보인 그 바위가 어떻게 이 과학자의 눈에는 오래 전에 살았던 거구의 척추동물의 잔해로 보였던 것일까요? 이것을 발견한 그 사람은 인부를 지키기 화석을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이가 65척키가 36척이나 되는 공룡이 정체를 나타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노력과 경비는 대단하였던 것이었지만 이제까지 발굴된 표본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가 발견해서 세상에 발표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의 하나는 유타 대학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발견된 그 자리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고상하고 영적인 세계를 쳐다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잠시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얻는데 필요한 노력에는 인색합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그것을 느낄 뿐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요구에 급급하여 영의 세계에 깃드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예시하는 증거조차도 못보는 예가 허다합니다. 인생이라는 경기는 매혹적입니다. 인간 자신이 직접 그 경기에 뛰어들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려는 강한 집념은 인간이 가져야 할 유일의 목적입니다. 예를들면 상인은 가격이야 어떻든, 때로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을 무작정 사려고 합니다. 위정자를 제외한 정치가가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고는 사회나 국가를 위한 봉사하는 구애되지 않고 그의 야망만을 만족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고귀한 목적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자신의 영혼 속 영의 불을 꺼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에 사로잡혀 방종이라는 꼬임에 따라가게 됩니다. 환상의 속임수에 그들은 곧 굴복하게 됩니다.

자녀를 인도함

복음 교사에게 부여된 가장 귀한 기

회는 자녀를 인도하여 육적인 세상의 고통과 번민을 초월하여 「이 신권에 찬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그 분은 우리가 번영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지를 시험하신다. 평범한 중의 만족, 불행한 중의 복종, 어두운 중의 신앙, 부단한 시험으로 우리의 견고함을 시험하시며 항상 그를 복종하고 믿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신다.」③

결론으로, 가르친다는 직분을 택한다는 말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부모로서의 책임을 갖게 되며, 인간을 선도한다는 지도의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과 상통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놓는다면 진리를 아는 데에, 또는 순수한 의욕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자기가 터득한 지식을 그에 계도 이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일생을 보낸다는 뜻과 같으며 이는 모범된 생활을 통한 전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덕한 행동은 유덕한 마음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의무는 또한 감시인의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높은 탑위에 올라 서서 훌륭한 젊은이들의 행동을 감시하며 교차원의 주기와 진정한 봉사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교사의 책임에 속한 요소들이지만 복음교사의 책임은 한층 더 무겁다고 하겠

습니다. 학생을 인도하여 도덕 및 윤리라는 산을 넘어 인간의 영혼이 영감과 광명을 받을 수 있는 영광에 가득찬 영혼의 정상에 까지 올라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과학자 로버트 에이 밀리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덕과 영적인 가치를 인식하는 일」이라고 말한 뜻을 이해한 그 빛으로 말입니다.

복음 교사의 기회와 목적에 대하여는 교리와 성약 93장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함은 너희로 예배하는 방법을 깨달아 알아 예배하는 자가 누구임을 알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와서 정한 시간에 아버지의 충만함을 받게 하려함입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을 것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내 안에서 영광을 누릴 것임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너희는 은혜위에 은혜를 받으리라.」 (교리와 성약 93 : 19—20)

하나님은 우리의 교사를 축복하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젊은이와 나라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길로 인도하겠다」고 말할 때 빛과 인도가 되어 주십니다.

① 로버트 메이나드 터친스 박사 미국의 교육학자

② 「뜻대로 하세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③ 존 게이 전 미국 대입원장

第 137 次

年次大會에 다녀 와서

李 虎 男



(사진 : 하와이 공항에서)

韓國을 訪問한 外國인들이 흔히 하는 말에 依하면 韓國인과 人事를 나눈 다음에 받는 質問으로 大部分의 경우 “韓國에 對한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번 美國 유타州 쏘트레이크 市에서 열린 第 137 次大會에 參席하기 위하여 美國을 訪問한 期間中 받은 質問도 역시 “美國에 대한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自己 나라가 外國人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熱意는 東西를 막론하고 대단한 것 같았

습니다. 이것은 知識人들의 部類에서 더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美國을 訪問한 韓國인들이 하나 둘이 아니며 또한 各己 訪問目的이나 滯留期間 또는 訪問 지역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르다는 事實을 再論할 것도 없거니와 이번 우리들이 느낀 것은 極히 국한된 범위내에서 얻은 印豫이라는 것을 強調해 둡니다.

약 14 時間을 비행기에서 보내고서 야 49 번째로 州로 승격한 하와이에 到着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부터 느낀 것은 역시 觀光客들을 유치할만한 平和스러운 곳으로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야자수, 맑은 태양빛, 수영복 만으로 거리를 누비는 일, 와이키키 해변등이 매일같이 生存競爭 等으로 허덕이는 우리 韓國인들에게는 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느린 것 같았습니다.

하와이 비행장에서 신 호범 兄弟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特히 案内員의 親切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親切을 베푼 그는 [美軍으로 韓國에 주둔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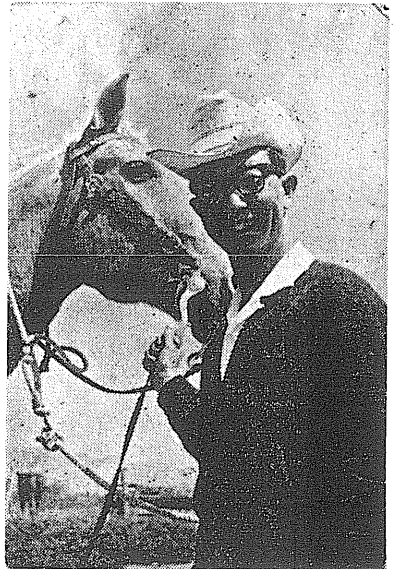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던 韓國에서 勤務할 當時는 韓國의 좋은 點을 물랐으나 이제 除隊하여 몇 年이 지나고 나니 韓國이 그리워져서 今年 여름 휴가때는 韓國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傳하면서 마치 親兄弟를 만난것 처럼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들의 生活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것입니다. 自己의 가족들, 친구들, 교회에서의 信仰生活, 어떤 團體生活 등에서 늘 不滿과 不平으로 生活하다가도 한번 멀리 떠나서 다른 世界에서 生活하고 있노라면 過去의 그 친구들, 그 信仰生活 등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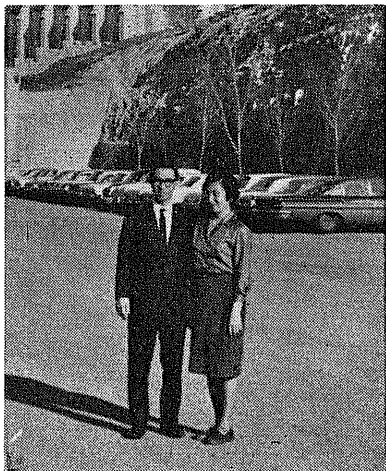
하와이에 있는 教會에서 運營하는 大學을 訪問하여 學生들의 生活態度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 民族들이 모인 이곳에서도 英語의 위력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신 教授의 案內로 學生을 위주리한 학구적인 授業方法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韓國聖徒들은 신 教授의 헌신적인 指導아래 團合되었으며 다른 東洋學 學生들도 신 教授의 이러한 特別한 指導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發見했습니다. 신 教授는 無言中에 自己의 兄弟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韓國 선교부 發展에 對한 期待는 대단 하였습니다. 몸은 그 곳에 있으면 마음은 늘 韓國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샬트 레이크 비행장에서 옛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형용하기 어

렵습니다. 밤을 새우고 이야기해도 다 하지 못할것 같은 質問과 答, 어느 兄弟가 어느 무엇을 하고있고, 支部의 主日學校 教師는 누구냐? MIA 會長이었던 그 兄弟는 지금도 活動의이냐? 그 兄弟와 그 姊妹는 結婚을 했느냐? 는 等等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精確한 韓國말로 궁금증을 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마음속을 찌르는 듯한 짧은 質問은 “韓國聖徒들의 干證은 어느 정도 입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信仰의 기초가 되어있습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답변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 보십시오.

기다리던 4월 6일 헝크리 사도께서 직접 주신 입장권을 가지고 大會場에 入場해서 대버나클 합창단을 봤





입니다. 數千名의 성도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이 右側間으로 向하였읍니다. 예언자 大管長任께서 부축을 받으시며 入場하시는 것이었읍니다. 大管長任의 모습에서 모세를 볼수 있었고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읍니다. 大官長任의 멧세지는 長男인 로버트 메케이에 의하여 代讀됐으며, 內容은 二十世紀에 사는 現代人들은 利己인 生活態度로 因하여 하나님의 事業을 忘却 한다는 것과 보다 強한 信仰을 얻기에 힘쓰라는 말씀이었읍니다. 많은 指導者들이 靈的인 말씀을 傳해 주시었읍니다. 그 중 감명 깊었던것은 教會를 통한 사랑, 兄弟의 사랑, 신앙, 그리고 간증, 이와 같은 單語의 뜻을 느낄수 있는 信仰을 얻어야 된다는것과 神權과 福音의 힘을 所有하지 않고는 사탄의 힘을 꺾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事業을 하루 速히 認識해야 한다는 것이 었읍니다.

大會期間中 大部分의 쏘트 레이크市에 居住者는 집에서 T·V를 通하여 大會進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外國이나 他州에서 參席하는 聖徒들을 위하여 大會場의 자리를 양보하는 方法이었던것 같습니다. 하와이에서 쏘트 레이크市로 가는 비행기에서 어느 著名한 美國의 政治人을 알게 됐는데 비행기 內에서 無料로 提供하는 커피, 담배等を 그냥 돌려보내는것을 보자 첫 마디가 “當身 물몬이요?”하는 것이었읍니다. 물몬에 대한 당신의 意見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勿論 말 할것도 없이 훌륭한 사람들이지요. 그 훌륭한 유타州를 建設한 것으로도 알수 있지요”라는 것이었읍니다. 이 사람은 로마 카도릭이라고 하였읍니다.

祝福中の 祝福은 쏘트 레이크 神殿에서 永遠한 結婚儀式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쉐트 조오지, 아리조나, 카리포니아, 오크랜드 神殿을 旅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儀式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었읍니다. 人間의 삶의 意義를 가장 쉽게 認識시켜 주는 곳이기도 했읍니다.

訪美中 宣教師들의 家族들과 짧은 時間을 가질 수 있었읍니다. 그들의 父母任들의 信仰의 態度는 實로 아들이 宣教師라는 偉大한 使命을 갖고 外國에 나갈 信仰을 길러 주기에 合當한 충실한 하나님의 종 들이었고 훌륭한 人格의 所有者들이었읍니다. 子息들의 每日生活을 걱정하시는 선교

사의 父母任들을 보고 果然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많은 子女들의 열려와 사랑때문에 독생자 예수任을 世上에 보내어 十字架에 못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그 뜻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美國人 兄弟의 案內로 그랜드·케논을 구경하기 위해서 세나라 보다는 큰 大型 승용차로 달리는 데, 모래 바람이 어찌도 강하게 불던지 우리들은 차를 세워놓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얼마후에는 奇蹟같이 바람이 사그러 지던 일들은 정말로 좋은 신앙의 체험이었습니다.

브리감·영 大學에 다니는 韓國人 聖徒들과는 좋은 意見交換을 했으며 우리들의 精神的인 援助가 必要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信仰의 態度가 弱해질 때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크다는 것을 生覺해서 늘 강한 간증의 소식을 傳하여 他國에서 故國을 그리는 우리 兄弟, 姉妹들에게 의롭지 않다는 느낌을 갖도록 努力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安相仁 兄弟는 美國에서의 홀아비 生活 3년에 불고기 料理 專門家가 됐고, 김응목 兄弟는 서울에서 택시 運轉士를 해도 無事故 運轉士 資格을 딸만큼 조심 조심 운전을 하였고, 늘 말이 없던 오 계희 兄弟는 教育學 博士任이 되기 위하여 데이트도 모르고 오락도 別로 갖지 못하고 있지만 教會 集會에는 꼭 參席하는 實踐家이었고 建築學을 工夫하는 배 응현 兄弟는 아

직도 말할 때마다 왼쪽 손을 내저으며 이제 A學點은 問題 없다고 自信 단단해 있었습니다. 로스·안젤스의 洪炳植 兄弟는 四男妹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고 그 유모어 섞인 英語는 역시 洪兄弟의 特許品이었습니다. 이영범 兄弟는 로스·안젤스의 韓國人 地方部長으로 誠實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최 상흠 兄弟는 愛妻家라고 命名해 두겠습니다. 최 재신 兄弟는 열으로 자라나라고 키는 크지 못했으나 보—링 선수였고, 洪 羽植 兄弟는 유타 大學에서 人氣獨點이더군요. 원래 社交的인 性格에다 實力도 上位였지만 치—스 工場에서의 生産過程說明에는 一級 教授格이었습니다.

역시 美國人들의 遵法精神은 본받을 만 하였습니다. 時速 70, 80 마일로 달리다가도 學校近處라는 표시만 보이면 곧 15, 20 마일로 천천히 가는것 등은 정말 좋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旅行 동안에 깊이 느꼈던 것은 말일에 회복된 참 교회 의 標徵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필자 : 한국선교부장단 제이보좌, 항공대학 강사)

× × ×
× × ×



1.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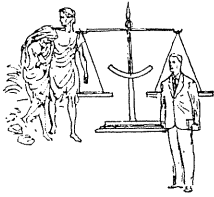
이것이 물론이다

리차드
엘·이반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제 7대 “물론”의 후손이 살고 있으며 “물론”이란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 회원의 별명입니다. 그들 대부분의 선조들은 약 100여년전에 유타주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이주해 온 개종자였습니다. 이들은 “물론” 선교사로부터 “회복”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심령과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생활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회복” 이래 약 130년간을 통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는 전세계에 걸쳐 수 백만 남녀의 생활에서 괄목할 만한 결실을 가져왔으며 19세기에 있었던 온갖 핍박과 몰이해에서 벗어나 오늘날과 같은 전도양양한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물론”은 진정한 자유의 옹호와 교육에 중점을 둠으로써 과학, 예술, 산업, 행정, 교육, 재정 등 각계 분야에 걸쳐 탁월한 인재를 배출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물론” 개척자들이 그레이트·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갔을 때 당시 잠정적 행



2. 우리는 사람이 자기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함을 믿는다.

정구역인 이 데저렐 지역에 대한 제 2차 공법안은 대학교 설립에 관한 특별 허가였으며 이것이 오늘날 미시시피 강 서편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주립대학교인 유타대학인 것입니다.

몇해전에 콜럼비아대학교의 에드워드 엘·돈다이크박사는 카네기재단의 요청으로 과학자의 출신지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주를 대상으로 조사연구하였습니다. 그의 조사 결과 유타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우세한 곳)가 과학자 배출수에 있어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판명했습니다. (제 2위의 주보다 약 30%나 높은 비율이었음) 돈다이크 박사의 “성공한 사람”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교육자와 연구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취학자수, 대학출신자수 및 교육과정 수료자수에 있어 유타주는 여러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열과 연구자유의 보장 등,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말일성도의 근본신념에서 나온 것으로 이

중 몇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이니, 다시 말하면……빛과 진리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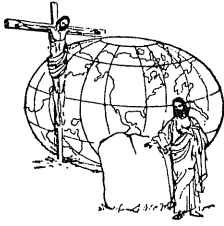
(교성 93 : 36)

“사람이 무지하면 구원 받을 수 없느니라.”(교성 131 : 6)

“이 세상에서 획득한 예지는 어떤 것이던지 간에 부활할 때 다시 우리의 것이 되느니라.” (교성 130 : 18)

제 2대 대관장이었던 부리감 영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여 진리입니다.” 이 말 가운데 우리의 종교를 다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간의 일 가운데 발견되는 일체의 진리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일성도들은 진리와 예지, 개성, 등은 영원히 영속화된 것이라고 믿으며 죽은 후에도 이 세상에서 얻은 이러한 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진리탐구는 좋은 기회도 되며 의무도 되는 것으로 고의적인 무지는 일종의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므로써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물론”은 소박하면서도 확고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로 많은 여행과, 언어에 대한 넓은 지식, 세계 각지의 민족과의 친교를 통하여 인류가 타인의 종교에 대해서 지극히 공통된 존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30년 간 꾸준한 신앙생활의 결실을 보여주었음에도 왜 그들은 오해를 받아왔는지의 아한 일입니다.

예를들면 “물론도 기독교도입니까?”라는 질문을 가끔 듣게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교도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명칭 자체가 제시하고 있었던 신앙개조 제1조에 명시된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말일성도 각자의 심령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한 권능을 소지하고 계시며 모든 인류의 구세주시던 속죄자임을 받아 드린다는 것이 바로 “물론” 교의 기본 신조인

것입니다. 이 말은 구세주와 하나님과 참다운 관계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 예수의 출생, 사망 및 부활에 관한 엄연한 사실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일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테모도전서 2장 5절)로 받아들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재림 후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11절)

삼위의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 드리면 말일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같이 사랑과 이해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창 1:27) “하나님 본체의 형상”(히 1:3)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구세주는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지만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분아지며 성신은 영체시라. (사 7:55)는 성경구절을 통하여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신회란 말일성도들이 경배하는 아

4.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 삼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安手禮)임을 믿는다.



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및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진리와 그분들을 우리 맘속에 증거하게 하는 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디서 생겼나? 교회의 명칭 자체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말일성도”란 말이 부가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옛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 계셨을 때 세우셨던 초대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말일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늘 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며 이러한 복음은 아담과 더불어 지구상에 왔으나 여러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배도하는 기간을 거쳐(노아시대와 같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조함으로써(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복” 됐던 것 처럼) 다시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말일성도는 구세주와 그의 사도들이 사망한 후에 인간이 초대 교

회의 원칙과 실천에서 탈선했다는 신교도나 종교개혁자 및 옛날 사도 시대 역사가들의 견해를 받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교도와 종교개혁자들이 참으로 그러한 견해를 가졌다고 할찌라도 그들이 이러한 권능을 소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회복”을 기다려야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19세기 초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과거 신권시대에 천국의 열쇠를 가졌던 분들이 그 열쇠를 반환해 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때가 찬 신권시대”(에 1:10)가 시작된 것입니다. (“회복”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요셉 스미스의 간증”이란 소책자에 기록되어있음)

요셉 스미스에 관하여

말일성도들은 요셉 스미스를 신구약 시대의 예언자들과 실제적으로 같은 예언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 스미스의 후계자들도 예언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옛날과 같이 현



5.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것을 믿는다.

재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예언자들에게 의하여 인도되어야 하느냐고 말일성도가 질문한다면 이상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언자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적어졌고 하나님의 인도가 불필요하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식어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 하늘 나라에 관하여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 9 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느 시대나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과 실천에 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므로써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이것은 믿음과 그 실천양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자 그대로 죽음에서 다시 소생케 되리라는 것으로 보아 구원은 만민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되로 되리니……”(고전 15 : 22—23)

위에 인용한 구절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할곳이 많도다.”(요 14 : 22)라고 지적하셨고 사도 바울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고전 15 : 40—42) 고 했으며, 만민이 모두 구원을 받으나 가장 높은 영생의 기회는 실천과 봉사와 복종 및 천국 계명의 순종에 따라 주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민이 각각 상이한 방법으로 동일한 목적에 도달함에 관하여

모든 선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아버지나 그러하듯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공평하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며 자비로우시며 모든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우리고 계십니다. 예를들어 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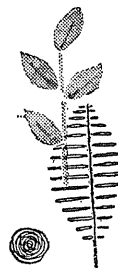
6.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 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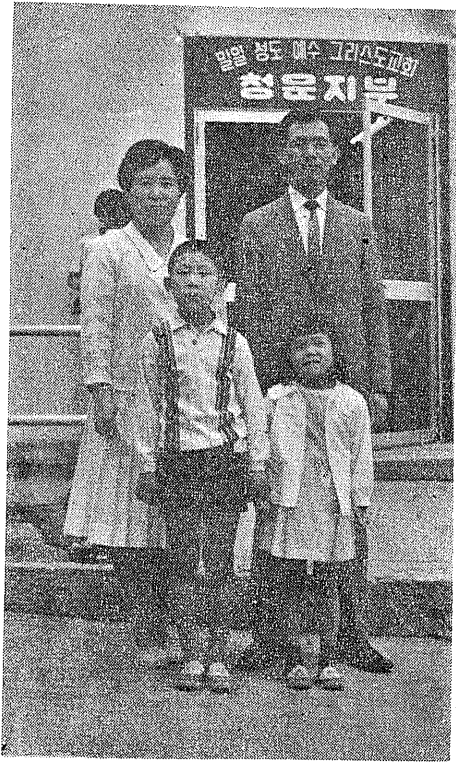
신의 아버지는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 기꺼이 학위 획득을 위한 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면 자격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알던지 모르던지 관계없이 필수적 법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또 가장 높은 영생의 기회를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수 없느니라.”(요 5:5)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은 또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켜야 할 여러가지 법칙과 계명 및 요건이 지금까지 생존했던 전 인류에게 골고루 알려지지 않은 것이 명백하니, 여기에 말하는 심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일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며 지상에서 필

요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 되거니…….”(베 전서 4장 6절) 스스로 복음의식을 받아들일 적절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포함한 복음의 근본 의식을 대리로 행하기 위하여 물론 신전을 세운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실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고전 15:29) (다음호에 계속)





청운동 7번지를 찾아서

김성옥 자매 이영환 형제

(I)

4월 5일. 오늘은 식목일 나는 억지로 휴일을 얻은 것 같은 기분에서 직장에서의 시달림을 훌쩍 풀수 있을 것 같았다.

“아줌마 누가 왔어요.” “누구냐? 못처럼 실려고 했더니……” 짜증을 내면서 물었다. “선교사들이 예수 믿으래요.” “우리는 믿으니 다른 집에 가보시라고 해라.”

선교사들은 가버렸다. 영숙이가 “아줌마 나도 교회에 나갈까?” 하는 말에 “그래라” 하면서 생각한 것이 소위 믿는다는 내가 집에 있는 영숙이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자 지금 그 선교사를 불러 오라고 했다. 영숙이는 다시 골목으로 뛰어가서 선교사를 모시고왔다. 들어오신 선교사님에게 “나는 감리교회에 나가고 있으니 영숙이나 인도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선교사들은

“요셉 스미스의 간증”이라는 소책자를 놓고 다음시간 약속을 하고 떠났다.

4월 15일. “아줌마 선교사가 오늘 나온다고 했어요. 일찍들어오세요.” “그래.” 하고 문을 나쳤다. 하루종일 직무에 시달려 오후 늦게 돌아오니 선교사들이 왔다가 주인이 없다고 하니 까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좀 미안했다. 다음 주일엔 영숙을 교회에 보내기로 생각했다.

4월 19일. 저녁 9시, 아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선교사가 일전에 놓고간 요셉 스미스의 간증 소책자를 읽어보았다. 처음에는 기독교와 다른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 하였는데 소책자를 읽는 중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또한 현대 계시를 믿는 교회인 것을 알았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인용은 특히 나의 마음을 끌었다.

4월 27일. 다시 선교사가 방문했다가 그대로 돌아갔다는 영숙이 말을 듣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했다. 어떤 교회인가 가보고 싶어졌다.

5월 8일. 오늘은 어머니날, 큰아들 우금이 “엄마 감사합니다”하고 카아네이손꽃을 발돋움 하면서 가슴에 달아주었다. 새삼스럽게 커진 아들이 대견스럽게 느껴지면서 손을 잡고 주일

학교(자교교회)에 데려다주고 나는 처음으로 정운동 7번지를 찾아갔다. 마침 어머니 주일이어서 상향회에서 어머니들에게 카아네이손을 달아주었다. 꽃이 2개나 되었다. 정대판형제님의 “어머님의 마음”의 노래는 더욱 내 마음을 즐겁게 해 주었다. 이분반 이야기, 성찬식, 분반공부 등 모두가 다른 교회와 시스템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선교사와 시간 약속을 하였다.

5월 13일. 처음으로 선교사와 복음공부를 시작하였다. 아빠는 이 자리에 없었다. 그날 저녁에 아빠에게 교회에 대한 여러가지 말을 하고 보통 교회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빠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듯 당신이 나 잘 믿으라고 했다.

5월 2일. 두번째 약속일이다. 선교사들이 오셔서 교회조직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아빠와 같이 복음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다른 교회에 오래 다닌 아빠는 아주 염증을 느껴서 요새는 교회도 안나가고 바둑만 두러 다닌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함께 참석할 수 있을까? 선교사들이 다음 토요일 칠펜식에 구경오라고 하여 가보기로 작정하였다.

5월 28일. 동부지부에서의 칠펜식에 참관하였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일이 있는 나는 구도자가 완

진히 물속에 잠기는 것을 보고 그의 식의 철저함에 놀랐다.

6월 9일. 오늘의 복음공부에는 꼭 아빠를 참석시키기 위해 아빠가 일찍 돌아올 수 있는 목요일을 택했다. 아빠는 8시에 참석 했고 선교사님들과 여러가지 토론이 있던 후에 아빠가 스스로 날을 정해 선교사와 공부했고 나는 틈틈히 어깨넘어로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

(II)

지금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선교사들과 복음공부를 시작한 것은 실은 아기엄마의 간청에 못이겨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감리교회에 나아 갔었고 그후로는 성결교회로 나아가게되어 성결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은 의혹과 함께 저는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타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늘 마음 한 구석에 유—토피야로 그리는 것은 직업 의식을 떠난 종교인애의 아쉬움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선교사를 만나서 우리 교회는 보수를 받고 일하는 목사직이 없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교회운영은 주일헌금이 아니라 십일조로서 운영해 나아감을 듣고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화에 대한 얘기와 요셉 스미스의 간증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의 계획

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까지도 나는 참된 복음으로 믿지 않았으며 특히 성서의에 물몬경을 하나님 의 말씀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금지초문의 얘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본판으로된 물몬경과 교의와 성약을 구입했습니다. 물몬경은 아마 성서를 조금 흉내냈을 정도 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일장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장로님에게 은근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싶어서였고 또 어려운 질문을 할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기에 말입니다. 니파이 1서는 큰 생각 없이 내려갔습니다. 니파이 2서 2장 13절의 다음 구절이 처음으로 저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율법이 없다면 죄도 없다 이르리라. 죄가 없다 이를진대의로움도 없다 이를것이라. 의가 없다고 이를진대 행복도 없다 이르리라. 의로움이나 행복이 없을진대 벌이나 비참함도 없으리니 이러한 것이 모두 없다고 하면 하나님 이 계시지 아니한 것이라.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없고 세상도 없으며 행하는 것이나 영향을 받을것도 없을것이요. 만물의 창조도 없을것임에 만사가 다 사라져 버렸을 것이로다.”

다음에 나의 마음을 끈것은 니파이 2서 2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人間의 自由意志에 따라 선악중에서 택일한다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보
 겠다면 나의 마음은 점차로 부끄러움
 으로 변해갔고 드디어는 물론경이 참
 된 하나님의 경전임을 믿게 되었고 모
 든 것을 이제부터 새 출발하려고 결
 심하고 9월 3일 아기엄마와 함께 장
 병훈 장로님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후로부터 우리 가정의 생활양식에
 변혁이 일어났고 직장에서의 대인관
 계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
 사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설교 잘
 하는 목사가 있지않습니다. 그러나 어
 디서 올라오는지 모르는 감사와 소
 망에 찬 생활을 할수 있게된 나를 아
 니 우리 가정을 감사할뿐입니다. 틈
 틈이 여가를 타서 복음공부를 할때마
 다 나의 간증은 점점 굳어짐을 느낍
 니다. 우리 교회야 말로 참된 하나님

의 교회로 살아계신 예언자를 모시고
 있는 교회라고.....

영원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임
 하시고 이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
 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
 으로 말미암아 미리 계획된 보상을 통
 해 우리에게 속죄와 구원을 주신것을
 감사합니다. 신권을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재건하여 주신것을 감사합니
 다. 예수의 재림의 확신을 주신것 감
 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니다. "아멘."

편집자주 : 김성옥 자매는 청운지부
 상호부조회 제 1보좌로 일하고 계시
 며 이영환 형제는 청운지부장단 제 2
 보좌로 계십니다.

(43 페이지에 계속)

신 형제께서 수술을 받던 어려움,
 그리고 그 어머니의 친절과 경성껏 만
 든 음식을 잊을수 없습니다. 한국을
 잊을수 없을 것이고, 착하고, 어질고,
 덕스런 모든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글은 선교부장 제 1보좌로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다가 금번 본국
 으로 진출하게된 쎄·손스 형제의 송
 별모임을 위해서, 지난 6월 4일 오후
 6시부터 동부지부의 상향회의실에서
 서울의 성도들이 함께 하였던 노변의

모임에서 행한 연설초이다.

이 모임에서는 차 종환 지방부장의
 "군인으로서 그처럼 봉사할수 있었던
 노고에 거듭감사한다"는 말씀에 이어
 선교부장의 "우리는 벌써 그가 하늘을
 날아 미국으로 가는것 같은 섭섭함을
 느끼지만, 그런것 보다는 그가 이곳
 에 남겼던 일들을 생각하자"고 하면
 서 떠나는 그를 위로 하였다. 이 자리
 에서는 성북지부의 민영난 자매의 반
 주로 이 순애 자매의 쏘프라수 노선
 화가 노래되었으며 지방부장단의 선
 물 증정에 이어 보이·스카운의 스카
 운 마후라 증정으로 모임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마 5 : 13—16)

차 종 환

진물은 높을수록 기초가 튼튼한 반석위에 지은 집이어야 비와 홍수와 모진 폭풍에 견딜수 있는 것입니다. 사상누각은 기초의 미약으로 쉽게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시편(89 : 14) 말씀과 같이 「의와 공의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했으니 이 기초가 중요함은 더 설명하지 않으렵니다. 악마가 기초인 교회는 가증한 교회인 것입니다. (니일 14 : 9) 신앙의 기초가 반석위에 세워진 자는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나 모래 기초에 세워진 자는 그가 쓰러질까 염려하여 떠는 것입니다. (니 일 28 : 28)

훌륭한 신앙생활은 교회 출석을 부지런히하고 성경을 잘 이해하며 생활이 검소, 성품이 온순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것들 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및 사귄 없이는 훌륭한 신앙생활이라 할수 없으며 진실한 영감적인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롬 8 : 9) 환언하면 신앙생활은 성경의 지적 이해, 진실성, 겸손, 순

결, 관용 사랑 등이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곧, 신앙의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미덕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중에서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독일 시인 「우란트」는 안으로부터 자라지 않는 것은 그 기초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즉 신앙 생활의 기초는 내부에서 싹이 트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여하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과 통하는 횡적인 면보다 위로 하나님과 통하는 종적인 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행정과 질서와 지도자들에 대해 모든 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교회행정이나 지도자를 비평하고 불평을 한다는 것은 주님 뜻이 아니요 성령에 감화된 말일성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성경에 대한 지적 이해가 많다 하더라도 진실한 기도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못한 성도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참 신앙생활 가운데 맺어진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은유, 충성이 스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발전만이 교회와 지도자들의 바람이요, 소망이며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 마음이 육육에 사로잡힌것은 사망이요 영으로 충만함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발전이 있어야 교회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발전은 외적인 발전과 내적인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13: 31~34)에 외부의 발전 즉 양적인 발전을 겨자씨에 비유했고 내적인 발전 즉 질적인 발전은 누룩의 작용과 비유했습니다. 양적인 발전의 비유는 우리들의 복음시작이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미한 것일지라도 그것의 세력은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미한 존재가 위대함을 나타낼려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씨가 크고 그 떡잎이 크며 사람이 잘 가꾼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임하지 않으면 발육이 좋지 못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베드레헬의 초라한 촌락의 마굿간에서 태어난 예수가 오늘날과 같이 빛을 받고 있고, 아세아의 한 구석에서 시작하여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은 세계에 오늘과 같이 전파된 사실, 복음의 산물인 기독교가 세계의 대종교가 됨은 인간의 능력, 노력,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요, 능력인 것이라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9세기 초에 세상 많은 교회가 주님의 뜻에서 멀어졌고 부패되었을 때 세상지식이 많지도 않은 가난한 농부의 나이 어린 아들 요셉 스미스에 의해 이 교회가 말일에 회복됐음은 인간의 뜻과 생각에 의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임을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속에서 투쟁을 하며 살았지만 그들의 열매는 헛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이 참교회, 신권의 권능과 열쇠에 의한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는 세상 어느 교파보다도 찬란하고 훌륭하며 또한 활동적이고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세상잡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다음 내적인 발전의 비유를 보면 술을 만드는 누룩은 가루를 부풀게 하는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성신의 감화를 받아 복음운동의 선봉자가 되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는 선교 사업에 참여하여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 들어가 그들의 영들을 깨우쳐 참된 길로 인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은 하나가 땅에 떨어져 부패되지 않으면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소금도 물에 녹아 희생되어야 조미료와 방부제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빛도 또한 어둠을 밝게 해
(52 페이지에 계속)



◇ 선교사 초대 ◇

카터 장노

티끌 모아 태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장을 표현해 주는 훌륭한 묘사어라 할 수 있다.

1830년 여섯 사람으로 시작된 교회가 1966년에는 이백육십만의 회원을 갖게 되었으니 조금씩 조금씩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 성장이야말로 전례전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것이다. 선지자 다니엘은 말일에 하나님의 왕국이 작은 돌만하게 시작되나 종내에는 지상의 온갖 왕국을 폐하고 경복한 뒤 영원토록 존재하리라고 말했다. (다니엘 2:44)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이 필연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처소처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고 박해를 당했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벌써 “몰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일부다처를 생각하거나 이단이라는 선입견을 저들 나름으로 강조해서 표현한다. 고대 예언자였던 니파이는 벌써 옛날에 세상의 죄와 간악한 인간들로 인하여 말일에 있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가 작으리라는 것을 시현으로 보았다. (니일 14:12) 이러한 박해와 간악함을 이겨내려면 먼저 내적인 힘을 갖춘 강한 교회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말일의 왕국을 건설하려면 더 많은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현재 한

국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교회의 어느 지도자에게도 뒤 떨어지지 않을만큼 헌신적이고 진실하나 더 강한 건설을 이루려면 교회 개개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즐겨 교회 안에서 큰 임무를 함께 나누겠다는 의욕있는 역군을 대단히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자기 임무에 성실한 신권 소유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연마할 수 있는 회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확신하건데 이 세상에서 물론 교회보다 자기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허가하는 단체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조직의 완벽의 면을 통해 볼때 교회는 정말로 훌륭하다. 이 교회는 종교나 철학이기에 이전의 삶의 길 그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교회에 대하여 그러시듯 한국의 교회에 대하여도 흡족해 하고 계심을 안다.

나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부지런히 일하시는 한국 성도를 보고 주를 위하여 더 봉사하겠다는 더 큰 의욕을 갖게 된 것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주께서 아래와 같은 말씀을 요셉 스미스와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이를 기억해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일로 두려워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는 것이니. 무릇 작은 것에서 위대

한 것이 비롯하느니라”

〈註〉 카터장로는 선교부장 제2보조로서 한국 지방부의 고문역으로서 선교부와 연락협조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 오기전 코로라도주 아담스 주립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었다. 그는 철저한 물문의 후손으로서 약 110년전에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은 증조할아버지는 곧 개종을 하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유타주에 살다가 브리감·영의 분산 선교정책으로 코로라도 주로 이사온 이후 계속 살고 있다. 한국에 온지 1년 9개월 되었으며 공부를 계속하고 군대를 다녀와야 하므로 결혼은 생각도 않고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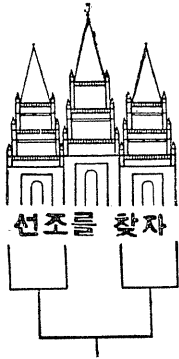
(49 페이지 계속)

사실상 첫번 느낌표와 셋째번 느낌표를 무시해도 전체의 균형은 그대로 좋다. 이러한 문제는 먼저 지휘자와 반주간의 합의를 보아 회중에서 제철히 조화 되어야겠다. 그러나 읊었던 각 느낌표 마다 짧게 호흡 할수는 있어야 겠다.

이 노래는 화음마저도 강하며 울겐이 화음된 회음의 노래에 부합되어야겠다. 페달로 강한 베스를 구사하면서 트레몰로를 쓰면 좋다 우리는 이 찬송가 전체에 권위와 위엄과 훌륭한 품위를 구하되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른 교회의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세”의 곡에서 엿볼 수 있는 장엄함은 표현되어야겠다.

이 처럼 긴 찬송가의 경우 처음과 끝만을 약간 전주해 주면 좋을 듯하다.

여러분의 신앙과 근면과 열성과 준비에 따라 결과가 맺어지리라 믿는다.



족보를 찾자

金 士 元

아버지시여! 이 나라에 신록의 계절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위로를 가져다 주었으며 육적으로 약동과 전진을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 합니다.

부족한 이 종이 지난 2월 19일자로 지방부 계보책임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래 각지부 여러 형제 자매님의 협력과 특히 선교부장님의 계보에 대한 훌륭하신 지도와 귀국하신 세손스형제님의 절대적인 지원과 선교부안의 많은 분들에게 감사 합니다.

세손스 형제님의 지원을 얻어 계보 담당 평의원으로 계시는 박 재암 형제는 전력을 다하여 솔트레이크 본부에 계보에 대한 각종 보고 연락과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지에도 계보위원회 설립강화에 동분서주하는 반면 금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마다 각지부 계보위원을 소집하여 전체 모임을 갖고 가족 기록서등 여러가지 공과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제 1,2월요일에는 지방부계보위원회 회장단의 모임이 있어 계보 사업추진에 대하여 여

러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 일문 선교부장님은 일찍이 한국의 족보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갖고 카우리 형제와 지 영달 형제를 지휘하여 약 일년전 부터 족보 수집에 착수하여 십 여종에 달하는 족보를 구하시고 계보 도서실과 각종 비품을 설치하였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앞으로 설비 확대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난 4월에는 부 대관장님께서 헝크리 사도님을 대동 하시고 한국을 방문 하심은 이 나라 형제 성도들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거니와 그 분도 장차 이 나라에 신전 설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본인도 우리 교회에서 계보 사업이 중요하며 한국에서의 족보는 자랑 할 만한 존재라는것을 알고 우선 족보를 많이 비치 혹은 소장 되어있는곳을 알기 위하여 공 사립 도서관 십여 곳을 탐방하였던 결과 수 개월 전에 국립 도서관에서 한국 민족 대부분의 거족적인 족보의 수집체를 발견하여

진실로 환희를 느꼈으며 인도 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상기 족보 11,805권에 대하여 약 2개월 간에 걸쳐 性 및 本別, 發行年代, 編者, 發行地, 圖數 등 목록 색인 안내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2백자 원고지 430매를 지난 월말에 탈고 하였으므로 근간 복사 하여 널리 이용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족보 一圖는 평균 100매 내외 가되며 1매당 선조들의 姓名 기재수는 대략 20명 정도 입니다. 우리 神權所有者들이 선조들의 代理 浸禮를 받아야 할 족보에 기록된 수는 약 1000권以上に 달하리라 보며 한국의 계보사업의 重要한 資料가 되고 있습니다. 上記 資料에 나타난 178性 851本에 對하여 11,805권에 기록된 여러 兄弟 姊妹들의 선조를 연구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性別, 本別, 派數, 圖數 등을 기록한 간단한 목록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약 2000년전의 족보를 가졌다는 것은 선진국가에서도 그 유래가 없으며 우리 민족은 계보로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이 일을 하면서 무한한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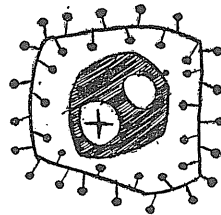
계보사업이 그 동안 많은 진척을 보아 6월중에 정확한 가족기록서 100매를 솔트·레이크 본부로 보내게 될은 의의 있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초대 대관장 요셉·스미스 계시는

異教徒의 폭력으로 인한 피신중에도 「기록」과 「증인」과 「대리침례」의 중요성을 강조시하고 수시로 서신을 통하여 각 교회 지부에게서 하셨습니다. (교 127, 128장) 또한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 이던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던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성구는 우리 교회가 신권의 권능에 의하여 행하는 이 땅에서의 계보 기록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정당한 기록으로서 이땅에 맺을때에 여호아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법령으로서 모든 사람이 순종하게 될것이며 (교 128:9) 우리들의 이와 같은 기록이 신전에 奉納되었을때에 「생명의 글」로서 채택되어 그들의 영생과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갈수있는 권능이 부여 될 것입니다. (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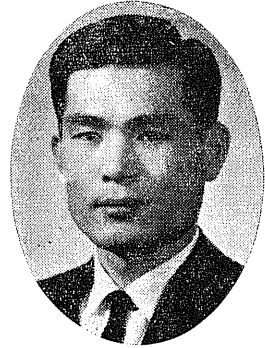
(필자 : 地方部 系譜委員會 委員長)



역원을 찾아서

—(3)—

김 석 모 형제편



이 달에는 장로정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은 김 석모 형제댁을 방문했다. 약속 시간에 대문을 노크했더니 내외분이 함께 반긴다.

기 자 : 안녕 하십니까? 두 분이 함께 마중을 나오신 친절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벗 독자를 대표해서 장로정원회 회장으로 부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름을 받으신 소감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제 : 주님 사업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평의원 하나만 해도 커다란 일이어서 평의원직만 같았으면 했습니다.

기 자 : 정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김형제 : 정 대판 형제가 지방부장이었을때니까 64년 3월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일을 보다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었는데 다시 다섯 번째로 제가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기 자 : 장로 정원회라고 하면 장로 96명 이상이 갖는 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김형제 : 처음에는 약 30명이 장로회라는 이름밑에 모임을 가졌었고 지난번 남부지역 지방대회때에 대구에서 3명이 장로 인준을 받았으니까 모두 78명이 됩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정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기 자 : 정원회에서는 대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김형제 : 각 위원회별로 정원회의 발전을 위해 토의한 후에 난해

한 교리라던가 신앙 발전을 위한 더 구체적인 문제들을 토의한다던가 회원간의 연구 발표 혹은 선교부장님의 말씀을 듣게됩니다. 분위기가 보통 다른 집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진지하고 구체적인 신앙의 얘기들이 오가기 때문에 형제들은 모두 신권승진하여 정원회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 자 : 김형제님은 언제쯤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김형제 : 1958년 5월 14일 이었으니까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삼청지부로 나왔었습니다.

기 자 : 지금은?

김형제 : 서부지부엘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달에는 신촌지역 담당 평의원이어서 신촌지역엘 나가고 있습니다.

기 자 : 대신권은?

김형제 : 침례를 받은지 2년후 었습니다.

(이때 자매님이 다과를 쟁반 가득히 들고 오신다.)

기 자 : 자매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김형제 :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기 자 : 형제가 교리를 지도한 후에 침례를 주는 것이 참 좋게 생각 되던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형제 : 물론이죠. 저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매는 서부지부엘 나가고 있다가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요양중입니다만 침례 후에는 활동적인 회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그런 계통입니다만 어려서부터 감리교회엘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는 듯이 두 분이 미소를 짓는다.)

기 자 : 득남하셨다고 들었는데 생일이 언제입니까?

김형제 : 지난 5월 3일 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날 이어서 앞으로 대통령 한 자리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기를 하는 도중 모기장 위로 파리 하나가 얼씬거리니까 파리체를 쥐고서 파리 사냥을 즐기신다.)

기 자 : 아이는 건강 합니까?

김형제 : (한번 안아 볼테느난듯이 아이를 추슬르면서)네, 아주 무척 건강합니다. 아이의 크리라던가 몸 무게가 평균치를 훨씬 넘은 우량아에 속합니다.

기 자 : 혹시 총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김형제 : 오히려 아들을 낳고 보니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벌써 키우고 결혼을 어떻게 시킬것인가를 생각중입니다.

기 자 : 결혼 후에 혹시 자신이 달라졌다고 생각 하시는 것은 없는지?

김형제 : 달라진게 많죠. 정신적으로 안정이되고 더욱이 자녀를 가지니까 가정에 더 충실하게 되고요.

기 자 : 서로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 충돌은 있어야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충돌 같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김형제 : 근본문제라고 생각되는 신앙과 경제적인 것들이 해결되면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야 직장일에 몰두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해서 그렇지 않지만 여자야 좁은 생활범위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감싸고 들어야죠.

기 자 : 물문으로서 주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직장과 가정에서 느끼는 불편이라던가 어려움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김형제 : 술 담배를 끊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인관계가 어려웠습니다만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난 지금에 와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술 담배를 안했기 때문에 멀리된 친구라도 도움(정신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을 필요로 할 때 자연 가까이 오게 마련이더군요.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읍니다. 제가 물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부사장이 극동담당자에게 저를 물문이라고 소개를 하니깐 어쩌도 칭찬이 대단하던지 그 이후에는 더욱 책임같은 것을 느끼고 행동하게 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 자 : 일상생활의 신조 같은것이 있다면?

김형제 : 이상과도 결부되는 문제인데요. 첫째 모든 것은 신앙으로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의롭게 많이 벌어서 도와 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물문들은 할 일이 많으며 금전적으로도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조를 받지 않고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사를 다른 나라로 보낼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유행을 싫어합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해보이고 그대로 생활하는 것을 좋아 합니다. 그외에 공부도 더하고 싶고요.

기 자 : 두분이 갖는 취미같은 것은?

김형제 : (많은 레코드판을 가리키며) 음악을 좋아하고 산책을 좋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신혼여행도 설악산으로 갔었습니다. 고생을 하기는 했습니

다만 신혼여행을 호텔로 가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 합니다.

기 자 : 집에 돌아오시면 무엇을 하게 되는지요?

김형제 : 요새는 직장관계도 있지만 불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태권도를 개인 지도 받고 있고요. 여가 선용도 됩니다 다만 건강없는 계획은 허사라는 생각으로 심신 단련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기 자 : 자매께서 하신 일중에 제일 고마웠다고 생각 하는것은?

김형제 : (연세대학교 경영 대학원 졸업논문으로 제출한 남색계통의 표지를 가리키며) “의료보험에 관한 연구”를 쓰고 있을 때 원고 정리를 하느라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교수에게 아내의 힘이 반 이상들은 것이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그랬다고 해서 아내들의 고마움을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무척 애를 썼지요.

기 자 : 신권회를 통해서도 형제들께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회원들에게 주실 말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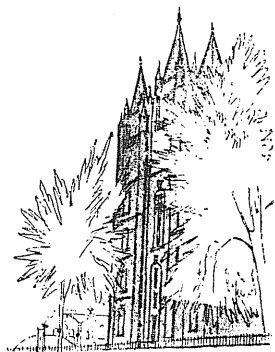
김형제 : 신앙이란 하나님 위주여야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커다란 오류에 빠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몬교를 한국에 뿌리깊이 심기위해서는 다 같이 자기를 내 보일 수

있는 용기와 자기를 비쳐볼 수 있는 거울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교회라는 주체의 식도 필요하고요.

기 자 : 끝으로 장로회의 발전을 위한 계획같은 것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김형제 : 장로들간의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7.8월 중에 짧은 캠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 자 : 네, 아무쪼록 계획을 많이 해주시고 또 계획하는 일이 잘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가끔 성도의 벼을 통해서 좋은 글 자주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

만 일

롯데드 키플링
한 인 상 역

만일 네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들의 것을 잃고 너를 닮을 때
머리를 바로 쳐들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스스로를 네가 신뢰할 뿐만 아니라
너를 의심하는 저들을 버려 둘수 있다면,
만일 네가 기다림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속임을 당하여도 거짓과 타협치 아니하고
미움을 받으나 미워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선한체 하거나
지나치도록 현명한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만일 네가 꿈을 갖되
꿈에 사로 잡히지 아니하고
생각하되 공상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만일 네가 성공의 기쁨과 환난을 대함에
이 두개의 거짓을 똑같이 채우할 수 있다면
만일 악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를 사로 잡아 얽으려고
네가 이야기한 진리를 의곡시켰을 때
이를 잠잠히 참고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네가

네 삶에 기여한 것들이 허물어져 버렸음을 바라보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만일 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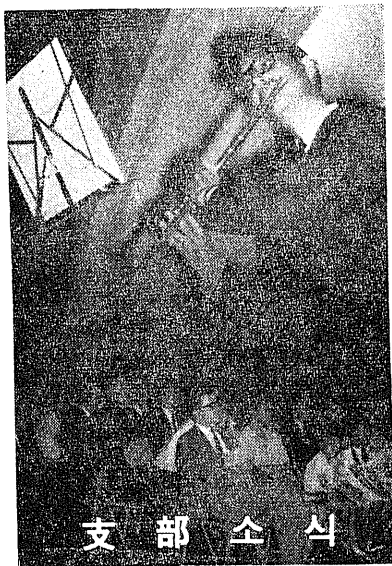
너의 모든 승리를 한테 몽똥그러
둔치기 노름 한판에 승패를 걸고,
그걸 모두 잃고 나서 단 한 마디의 탄식도 없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만일 네가,

너의 기력과 기회가 다한 다음에도
너의 마음과 신경과 근육을 강행시킬 수 있고
모두가 다 가버리고 다만 “계속하라!”는 의지만이 남았을 때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만일 네가

대중과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덕을 잃지 아니하고
열왕과 함께 하며 평범을 잃지 않는다면,
만일 너의 원수거나 사랑하는 친구로 하여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너를 아끼되 아무도 도를 넘지 아니하면,
만일 네가 용서없는 일본을 60초의
가치가 있는 거리의 땀박질로 메꿀수
있다면 이 땅과 땅의 모든 것이 네것일 것이요
나의 아들이! 그보다노,
그보다 더한 진정한 인간이 되리리.

(편집자주 : 성도의 벗 표지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감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支 部 소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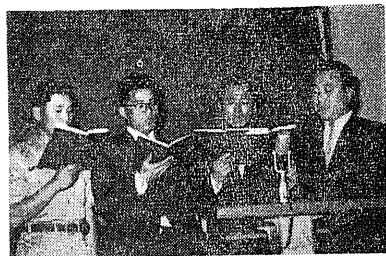
<사진 : 후락을 두루하는 버들리형제>

東 部 支 部

동부지부에서는 지방대회를 마친 지난달 25일 오후 6시부터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송 정섭 형제의 환송 예배가 있었다.

그는 동부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송 태섭 형제의 동생으로서 선교사로 출발하기까지 지부장단 제1보좌로서 지부에서 활약중이었다. 그는 현 동부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있는 주 영자 자매의 아드님이기도 한데 그의 4형제는 오래전부터 어머니님과 함께 교회에 봉사해 왔었다. 예배

송병주 형제님과
주영자 자매님의
세째 아드님이신
송정섭 장노님의
환송 간증회를
다음과 같이
갖었습니다 .



<사진 : 좌로부터 2번째가 송별회에서 함께 중창하는 송정섭형제>

에서는 선교부장의 격려의 말씀과 그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가 동부지부장단에서 나옴으로 해서 손재만 형제가 제1보좌로 이낙연 형제가 제2보좌로 임명되었다.

또한 동부 지부에서는 성인의 밤이

란 시간을 금요일 오후 7시에 갖고 있는데, 이 시간은 종교인으로서 필요한 광범위한 지식을 얻기위해 교회밖에서도 연사를 모셔오고 있다. 동부지부의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다른 어떤 지부도 착상치 못했을것이라면서 자랑이 대단하다. 지난 달 25일에는 경희대학교의 김 태곤 교수를 모셔다가 “한국의 사마니즘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란 연제로 강연을 들었다. 그는 강연에서 제사를 지내는 동양적인 관념을 해결해주는 종교는 무종교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인구의 9할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점차적으로 대중에 파고드는 불교의 전파를 관과 해서는 않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지난 1일의 이 모임에서는 한 인상형제의 물문경을 번역하면서 있었던 주위의 얘기들을 들은바 있는 동부지부에서는, 앞으로는 다른 교회의 목사도 연사로 초청을 해서 종교적인 토론을 하겠다고 한다. 다과를 준비하는 이 모임은 다른 지부의 회원도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

삼청 지부

한국지방부 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중의 하나로 알려진 “엣집”에서 예배를 보고있는 삼청지부는 오랜동안의 숙원이었던 담장 개축문제가 본부

건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새로 단장하게 되었다는 소식. 이러한 대공사에 요하는 경비의 20%는 지부에서 부담해야 하는만큼 전혀 지부살림에 어려움이 없었던바는 아니지만, 신앙있는 회원들이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자기 수입에서 작은 거액을 바치기로 지부장과 약속하여 지부의 밝은 내일이 기대되고 있다.

홍대 졸업반으로 재학중인 삼청지부의 최순자 자매는 교내에서 연례행사로 열리는 “미쓰 뷔너스 선발대회”에 후보로 추천되어 이미 예선을 거쳤다는바, 유리한 여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는 소식.

미모뿐만 아니라 학업성적과 품행과 인기가 채점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이 대회에서 이제 교수들의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리라는 데, 주택설계에 뛰어난 관록을 보여준 실력과 말일성도로서 닦아온 덕성이 심사위원의 눈을 끌게 되리라는 측근자의 낙관적인 전망평이 있는것으로 보아 머지않아 “팔방미인”이란 뜻은 “말일성도”로 바뀌어지지나 않을런지.

대구 중앙지부

지난 27일에 있었던 남부 지역 지방대회에서, 대구 중앙 지부에서는 3명의 장로를 내었다. 그들은 지부장

■ 支 部 소 식 ■

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김상현 형제와 육군 군의 학교에서 교관으로 있으며 지부서기로 봉사하고 있는 배성수 형제와 대구 대학 졸업반이며 지부의 음악지휘자로서 봉사 하고 있는 김희준 형제인데, 도길회 지부장님에 의하여 제사의 신권을 받은 이들 형제들은 더욱 지부에서 봉사하겠다는 뜻을 내 보인바 있어 회원들의 축하의 미소는 더 한층 밝았다.

신촌 지역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칭찬해 주신 여러 형제 자매, 선교사, 선교부장 부처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27일에 갖었던 모임에서 기악으로는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성악으로는 합창 중창 독창 순서가 있었으며 레파토리로는 멀리 베토벤, 쇼팽을 비롯해서 가까이로는 최창권, 손석우 제씨의 작품을 고루 배합해서 한시간 반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신촌지역의 여러형제 자매, 선교사님들 특히 장항회 역원의 힘이 컸고, 마음으로 부터 성원해 주신 여러 지부의 회원 그리고 지방부 장항회 역원의 도움이 컸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전데 순수한 음악회의 이름밑에 연주회가 개최된 것은 한국 선교부 창설이래 처음 행사가 아니었던가 생각되어서 준비가 되는 때

로 이같은 연주회를 거듭해서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질을 어리석은 종처럼 묻어두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신촌 지역장으로 임명되어 첫 성찬식을 가진 그날 저녁(3월 셋째주)에 이 모임은 장항회 역원에 의해서 구상되어 진 것이었습니다. 우연한 일치라고나 할까 그 다음 주 선교부장 맥을 방문했을때 선교부장께서 이 모임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조출연해 주신 인천지역의 허옥선 자매, 함킨스 장로, 청운지부의 이근덕 형제, 홍성욱 자매, 선교부의 세틀 장로, 그리고 귀국을 며칠 앞두었던 버틀러 형제에게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병고치는 은사가 금식과 기도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것 처럼 이러한 모임은 형제 자매의 자발적인 협동심과 단결력 그리고 지도자에게 의 순종심 없이는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으로 교훈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알차고 수준 높은 연주회가 거듭될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펜을 놓습니다.

지역장 경 대 판

마호니의 장로 최고점

선교부에서는 한국 선교사를 포함한 전 선교사에게 월 1회의 한국어 시

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번 이를 실시 했던바 성북지부의 마호니 장로가 94점으로서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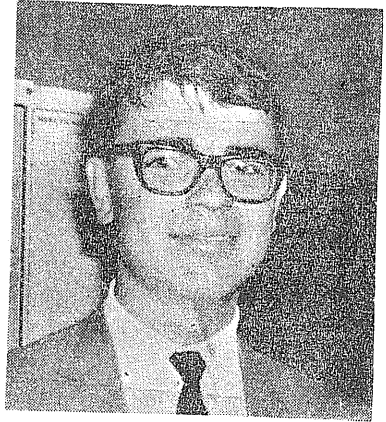
한국에 온지 1년 6개월이 된 그의 한국 말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모든 선교사에게 거울이 된바 있으며 그를 잘 아는 형제들은 그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한국 말을 배우는데 온 정성을 쏟고 있다고 했다. 남녀 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적당한 말을 구사할 줄 아는 그는, 표현에 있어서도 거의 완숙한 경지여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축복을 특별히 받지 않았나하고 생각 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한글을 열심히 배우는 목적을 “선교를 열심히 하기 위한것이며, 선교를 이처럼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그는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대전 지역 개척

송정섭 장로와 그의 동반자인 페리튼 장로, 그리고 칼슨 형제와 동반자인 파커장로의 4선교사는 지난 22일 지방대회를 마치고 개척지인 대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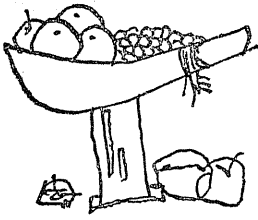
향해서 출발했다. 작년 12월의 인천 지역에 이어 대전으로 향한 이들은 벌써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여러 형제 자매님의 친지 소개와 그리고 기도를 바라고 있다.

선교사 새로 오다



<사진 : 새로운 스티프스 장로>

지난 5월 24일 스티프스 장로가 선교를 위해 한국 땅에 발을 딛었다. 네바다州 볼더市에서 온 그는 브리감·영 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했었다. 그의 부친은 스테이크의 12정원회 회원이며 모친은 계보 도서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는, 어려서 부티교회에서 컸다고 말한다.



習俗으로 본 韓國

裴 一 文

이 글은 지난 6월 2일 오후 2시 부터 국립중앙의료원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 주둔 전 미국 군의관의 모임인 38 PARAUERL MEDICAL SOCIETY 란 모임에서 행한 선교부장님의 연설초이다.

67년도 하기 대회였던 이 대회에서는 의료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초청강사로서 팔머 박사가 참석했던 회의였다. 이 회의의 정회원인 미군의관(미군 배속 한국 군의관 포함) 약 80명과 준회원인 한국과 미국인 의사 약 40명이 참석했던 이 회의에서 팔머 박사는 약 25분간 연설했으며, 이런 회의에서 한국의 습속에 관한 연설을 부탁하게된 이유를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이 날 회의에서 사회를 맡았던 조인스 대령은 “우리 군의관들은 근무지를 이곳 저곳으로 옮겨야하며, 옮길때 마다 그곳의 생활양상이 틀리므로해서 오는 불편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을 치료 해 주는데 있어서도 그 사회의 습관을 잘 알지못해서 저질렀던 실수는 많이 있었고, 또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팔머 박사를 모신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며, 이것은 대부분의 회원인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주었다.

☆

☆

☆

저는 일전에 남원에서 일단의 종교지도자들과 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 남자는 모두 상투를 틀고 망건을 썼고 수염을 길렀으며, 여자는 옛날 춘향이가 했던 형태 그대로 쪽을 찢어 아주 전통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차림은 통이 넓은 바지 저고리에다가 얇은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이들이 자리에 앉을 때를 관찰해보니, 대개의 한국사람들이 그렇게 하듯 두루마기 자락을 모두 앞으로 접어 들고서 허리춤을 다시 한번 여미더니 앉았습니다.

그런 얼마 후에는 동내의 이곳 저곳을 살펴보고서 젊은이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서양인들과는 꼭 달랐습니다. 서양인들은 담배를 피울 때, 담배를 쥔 손의 손바닥을 자기 쪽으로 두고서 담배를 피우는데, 한국인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들도 손등을 자기쪽으로 두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들은 어디에 기인한것이겠습니까?

한국이 조상들은 지위에 따라 의관이 달랐었는데 그것은 약 백여년 전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국적인 풍속으로는 모자나 옷은 물론이지만 버선을 매는 대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잠을 잘때 외에는 풀러놓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복 중에서도 남자가 입는 한국 전체의 고유한 옷은 허리를 매게 되어있고 특이한 스타일로 입게 되어 있어서 자주 치켜세워 흘러 내림을 막는다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장구한 세월의 습성은 그들이 한복을 벗고 양복을 입었을 때에도 그들의 기억의 한 구석에 남아 있어서 이러한 몸짓을 하게 됩니다. 또한 흰색을 좋아하는 한국 민족은 옷 자락에 더러운것이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루마기의 뒷자락을 여민 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울때 손 바닥을 자기쪽으로 대는 것은 한국에서는 윗 어른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어른에 대한 예의여서 어른을 만났을 때 쉽게 감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적인 가정교육이 잘 되어있는 사람일수록 그렇다는 것도 농촌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도시인도 이러한 습관을 보고 배워서 가끔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500년전의 습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의 이러한 습성을 설명하는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할지모르나 현대인을 이해하려면 역시 전통적인 옛날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서구식의 해결 방안을 오히려 불편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문화라는 것은 자기대나 자기의 아들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좀더 오랜 시간을 요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쉽게 버려 질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야 할것입니다.

한국의 가족제도는 차차 변질을 가져오고 있기는 하지만, 대 가족적이고 따라서 한 사람의 윗어른 밑에 뭉쳐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가족간에 우열의 감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권력자는 가장이 되며 따라서 가족의 대사는 개인의 일이기 이전에 가장의 임무요 또한 전 가족이 함께 애를 써야 하는것으로 되어집니하.

가지고 있는 조건 내지는 환경이 인간의 결속에 주는 영향이라던가 안정 같은 것을 우리는 동양사회를 이해하는 발판으로 해야 할것입니다. 이것을 이해치 않고서는 그들의 습성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불협화음 내지는 오해로해서 빚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겪어야 될것입니다.

한국에서 의료사업에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세손스 · 형제

(선교부장 제1보좌)

좀 전에 차형제께서 선교부장의 오른팔을 잃은것 같은 섭섭함을 느낀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나는 왼팔잡이여서 한국과 선교부를 떠나면서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동 웃음)

약 2,3주 전만하여도 저는 8월쯤에나 한국을 떠날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저의 교체를 위한 근무년한은 약 2개월이 남았던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와싱턴 D.C

에 가서 근무 하게 될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든 힘을 다해서 월남전쟁을 종식 시키려 하고있고 주한 미국 대사 브라운씨는 이러한 일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무장관 특별 보좌관으로 가는 이때에 같은 와싱턴으로, 그것도 같은 날에 출발 한다는 것은 의미 심장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일동 웃음)

못 생긴 거위 새끼가 커서 백조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인

간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가 뒤따르고 이것을 극복 함으로서 비로소 위대하여 질수 있다는 좋은 비유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웃음의 소리 입니다만, 회랍의 유명한 철학자 쏘크라테스도 자기 얼굴이 뒤범벅인 것을 알고, 얼굴은 할수 없으니 마음이나 착하고 어질게 해달라고 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민주 공화당을 상징하는 황소가 있던데, 그것이 못생겼다고 해서 한국인이 못 생겼다는 말은 될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늘 하던 생각 입니다만, 오늘 날에는 어느곳에서나 복음을 들을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미국 처럼 합당하게 복음이 전해진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국은 복음을 받기에 합당했었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제생각으로는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커다란 바다를 건너와서 주님을 찾으려던 신앙의 갈구는 어느 민족에게서도 볼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역사를 검토해보고서 어려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였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개척하려고 애 썼고 또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때 조그만 이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변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읍니다. 또한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볼때 감사함 마저 느끼게 됩니다. 한국 전체가 경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때 저의 아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올때에는 경제적이고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 되리라고 믿읍니다.

이곳에 있는동안 선교사들의 간증에서 얻은것이 많았으며 이들의 봉사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께서 웃음으로 대 해주셨던 친절을 감사합니다.

제보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분들과 보이·스카운, 그리고 유치원등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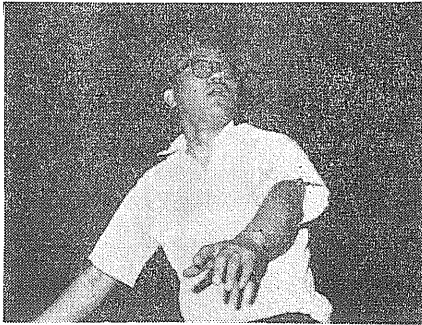
연극을 마치고

한국선교부가 발족한 이래로 지방 부상향회에서 처음 시도한 연극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상향회를 통한 한국 성도들의 발전상을 여실히 보여 주게 되었다. 더구나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남부지역의 성도들을 위해 부산 E. S. S. 회관에서 공연을 하였음은 大事를 치룬 것이요 크게 致賀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5월 18일 오후 7시 선교부 대강당엔 마침내 개막의 종이 울려 퍼졌다. 스탠진과 캐스트진은 이날 저녁을 위해 그동안 겪어야 했던 온갖 어려움

을 모두 잊고 분장실에 모여 서로 위로하며 함께 기도를 드렸다. 기도가 끝나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채 각자는 자기의 위치로 돌아갔고 서로 악수를 굳게하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드디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 한국지방부 상향회 주최 1967년도 연극 박 우천작, 정용재연출, 속없는 달팽이...나오는 사람들...하고 작품 소개가 마이크를 통해 퍼져 나가자, 분장실 주변에는 자못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막이 열리자 각자는 그간 길러온 재능을 십분 발휘하여 저마다 열띤 연기를 보여 주었고 관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가끔 연기자의 음성이 작아 관중들에게 불편을 준 점도 있었으나 작품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고, 순자를 비롯한 허대포, 사공, 부인, 김군, 미경등 출연자들은 각기 자기가 분장한 인물의 개성을 잘 나타내주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허점은 간간히 나타났다. 연기자와 녹음으로 준비한 음향 효과





의 불일치라든지, 조명의 불완전함이
 라던지 가끔 대사를 기억치 못해 당황
 한 연기자의 태도가 그런 것이었으리
 라. 연극이 끝나자 흥분과 긴장과 초
 초가 채 가지지도 않은 분장실주변에
 날아온 인사는, “참 잘했다”는 것이
 었다. 그때야 비로소 캐스트와 스텝
 진은 안도감을 얻은 듯 했다. 좀더 잘
 하지 못한 유감이 욕심으로 남긴 하였
 지만 연습 과정을 잘못 지켜온 관측
 자들이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잘 했다
 는 호평을 받았다는 데서 출연자와 무
 대뒤에서 수고한 성도들의 노고가 컸
 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
 운 일이지만 솔직이 말해서 이번 연극
 은 총연습일이 20일정도에 지나지 않
 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강행군을 강
 요당한 연기자들의 고충이 어떠하였
 는 가히 짐작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여하간 그것은 준비의 부족에 속하는
 것으로써 비록 결과는 좋았다고 하지
 만, 차기 연극을 위해 좀더 반성해야
 할 바가 없는 것도 아니다. 교회 활동
 을 준비할 때는 항상 그렇듯이 좀더 성

의와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했을 것같
 다. 물론 素人劇을 전문가의 예술성
 과 규모에 비교할 수없는 일이지만 조
 금만 더 노력했으면 좀더 나은 연극
 을 우리의 나름대로 잘할 수 있었지않
 았을까하는 감이 든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막이나
 되는 大作을 大週없이 끝낼 수 있었다
 는 점은 상향회의 큰 수확이 아닐수
 없다.

끝으로 이번 연극을 위해 물심양면
 으로 후원해주신 팔마 선교부장님과 차
 종환지방 부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해 주신 지방부 상향회 의원 여
 러분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지방부연
 극 교사로서 직접 작품을 써주신 박우
 천 자매와 부친이 병환으로 병원에 계
 신 어려움중에도 연출을 맡아 주신 정
 용재형제, 부산까지 가서 수고해 주
 신 조연출의 서희철형제, 밤늦게까지
 여러날동안 무대장치를 준비해주신 우
 양자 자매, 소도구를 준비해 주신 김
 상호형제, 조명의 전종철형제, 그리
 고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신 페리튼장

노와 서태봉장노에게 감사한다. 또한 부산공연을 위해 장소 준비와 소도구 준비에 협조해 주신 배영천 부산지부장님과 키슬리 장노에게 감사하며, 출연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잠자리를 준비해 주신 김용일 동구지부장님께 감사한다. 더욱이 하기 힘든 배역을 맡아주었고 부산공연까지 무사히마치고 돌아올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김진지조형제, 박관호형제, 박중식형제, 임명재자매, 정순덕자매, 강성자자매에게 특별히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바이다. (지영달記)

배구대회를 마치고

《서울대회(6월 10일)》

서 전

언제나 의 그 긴장과 소음이 운동대회의 분위기를 자아냈고 열띤 선수와 응원단의 때가 본부 주변에 진을 치기 시작했다. 그 게 오후 1시반경 심판을 맡도록된 나는 전에 지부장을 했던 삼청지부의 청원을(선수로 뛰자는)거절해야하는 부담으로 약간은 우울한 채 호감을 받아 걸었다. 개회의식이 끝나고 상향회 평의원인신 김상호형제님의 말씀이 끝난뒤 심판 규정과 응원심사 규정이 발표되었고 뒤이어 대진표가 추첨되었다. 추첨결과 삼청대 청운, 등부대 서부의 순으로 대진이 결정되었으나 과연 어느 지부가 얼마큼의 실력을 쌓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미지수였고 과연 얼마만큼 엄격하게 심판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머리속에 미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전혀 놀라운 현상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팀웍이라던지 경기운영의 기가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저조되었다는 인상을 던져 주었고 첫 게임이 시작되도록 삼청과 청운은 똑 같이 선수 전원을 출전시키지 못해 8名만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했다. 이러한 현상도 역시 시정되어야 할 사환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신장에서 서로 평행을 유지한 청운과 삼청의 대전은 토스 미스및 수비의 범실이 잦은 위에 이렇다할 공격을 구사하지 못한 삼청이 레프트 킬러가 종횡으로 활약한 비교적 안정된 청운에게 쉽게 셋트 스코어 2:0으로 무릎을 꿇었다. 게임의 내용으로도 이날 삼청은 완전히 청운에 눌리고 있었다. 과연 강하지도 않은 청운의 서브를 계속 일곱씩 먹어야하는 삼청의 수비는 이날의 컨디션이전에 연습 부족이요 전혀 팀웍을 정비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에서 기인한 전의상실임을 말하고 있었다. 삼청은 간간 전위의 하이킥을 성



(사진 : 우승한 서부지부)

공 시키거나 적의 범실에 득점을 의존하는데 그치고 만 셈이다. 적이 부진하던 제 2 셋트초반에 득점하여 기세를 돋구다가 다시 적이 자기들의 페이스를 찾음과 동시에 패퇴한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뒤이어 벌어진 등부와 서부의 대전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열전. 먼저 게임에 비해 훨씬 게임다운 게임이었다. 작년의 패

자인 동부는 폐자다운 위세로, 준 승자였던 서부는 도전자 다운 힘으로 부딪혀 갔다. 끝내 2:0으로 서부가 동부를 눌렀지만 게임의 내용은 힘든 것이었다. 득점원이던 라이터 킬러를 잃은 동부가 다른 킬러를 대치시키긴 했으나 찬스를 잡지 못했고 서투다는 인상마저 갖게 하는 전위의 미숙함이 대세를 자멸로 가름나게 했다. 이날 서부는 지부장을 전위 센터에 세우고 라이트킬과 레프트 전위 스파이크로 득점하면서 시종 침착하게 게임을 몰아갔다.

청운의 역전패

뒤이어 벌어진 결승전 청운과 서부의 대전을 놓고 일부는 청운의 승리를 낙관했고 사실상 첫 셋트는 청운의 것이었다. 21:16으로 기선을 제압한 청운이 제 2셋트에서 방심하지 않았던들 16:21로 제 2



(사진 : 신판설명하는 지영달 형제)

셋트를 뺏기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토록 위력있던 레프트·킬이 겹쳐 시도되지 못한 채 셋트를 빼앗긴 청운은 끝내 초초와 성급으로 팀웍을 잃고 범 플레이로 자기의 베스트를 다하지 못한 채 아깝게 역전패 당하고 만 것이다.

이로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청운은 최후의 순간에서 역전패를 당했고 좁은 운동 경기에서 승운이 없던 서부가 실

로 오랫동안 배구 트로피를 안게된 것이다.

끝으로

물론 이날 일반적으로 선수들의 태도가 좋았다고는 하나 그것은 전에 비해 좋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정하는 어느 기준에 도달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것은 선수및 응원단원들이 너무 감정에 몰려 이성을 바로 가누지 못한 점이다. 이것이 실령 승부에 집념하는 운동경기였다 할지라도 복음의 정신마저 잃어서는 안될 일이었고 왜 그러한 경기를 갖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었다.

경기에서 있었던 일이었으나 양측에서 서로 바이어레이션을 범하는 경우 자기가 행한 과실을 전혀 무시한 채 상대방의 흠만을 혈뜰으려는 그런 태도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청운에 영패한 삼청이 일각을 지체않고 경기장을 떠난 일도 씁쓸한 처사였고 비록 동부가 패퇴한 이후에도 계속 자리를 지킨채 응원을 계속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의 과연 무엇이었나를 깊게 생각해 보지않을 수 없다.

요컨대 우리는 이 기회를 빌어 인간은 오직 평면의 눈을 가진 탓으로 자기는 못본다는 사실과 자기와 상대를 동시에 보는 심판의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게 배우고 동시에 운동 경기를 끝낸 다음에는 참으로 다정한 악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 형제애를 잘 배우자고 하고 싶다. 따라서 코트밖에 앉은 응원단은 남을 깎아 내리는 응원을 하기 보다는 자기들 선수의 사기를 돋구는 응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고 임원들 역시 경기의 승부

에만 집념하지 말고 전체의 분위기 및 상호 유대증진에 눈을 두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선수들이 열전을 벌리고 있는 코트 주변을 맴돌면서 코트안의 선수들을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일단 지방부가 정한 규례에는 어김없이 복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원 전원은 감정으로 격하기 쉬운 이러한 날 일수록 더욱 언행에 조심해야 할 것이며 “우리”를 주시하는 여러 각도의 지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남부 대회(6월 10일)«

남부대회는 대구가 결석한 가운데 거행되어 유감이었으나 언젠가는 모두가 한자리에서 경기 할 날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남부대회에서는 부산동구가 부산을 2:1로 제압하여 남부의 첫 배구 트로피를 안았다.

(한 인 상 記)

성도의 벗 퀴즈

기원전 600년 경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리하이는 누구의 후손이었나? 그것은 어느 기록으로 알게 되었으며 그 기록은 누가 어디서 입수한 것이었나?

응모 요령

1. 문제와 해답을 쓰고 주소, 성명, 성별과 소속 지부명을 명기할 것
2. 해답은 “성도의 벗” 편집실로 보내되 7월 20일까지 보낼 것

시 상

1. 매월 5명씩 추첨하여 계속 3회정해답자는 성도의 벗 1년분증정
2. 정해답자는 성도의 벗에 발표함

제 2 회 문제 정해답

1. 교리와 성약 89 장
2. 제 2 대 대관장 로렌조 스노우

정 해답자

부산 동구지부	방춘성 형제(1)	정단자 매 (1)
청운 지부	김문순 자매(1)	동부지부
삼청지부	강춘봉 형적(1)	고천석 형제(1)

※ 괄호안의 숫자는 정해답 회수를 말함.

“내주는 강한 요새요”

8월분 주일학교 연습찬송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틴·루터박사는 (1483—1546) 아직 대중을 위한 찬송가의 토대가 잡히기전 불타는 헌신적 송가를 만들어 이웃에 뿌리깊게 심어놓았다.

땅이 진동하는 설교만을 한것이 아니라 힘에 넘치는 찬송가의 가사를 쓰기 위하여 그의 시의재질을 발휘하였고 이를 위하여 작곡까지 겸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찬송가는 그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루터는 예배를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의 가슴에 신앙을 불어 넣어주기를 즐겼다. 루터는 그의 집에서 저녁을 끝내고서 그의 자녀와 친구들과 함께 찬송가를 즐겨 불렀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간의 서신중에는 가정적인 루터 집안의 행복을 적은 구절이 많다. 루터는 깊은 음성의 소유자였으며 푸룽을 연주하길 즐겼다. 그가 위텐버그에 있는 성곽교회에 문혔을 때 사람들은 그의 무덤에 그가 즐겼던 “내주는 강한 요새”를 불러보냈다.

우리는 말일성도 지부장 한분이 그의 가정에서 찬송가를 불렀다는 얘기를 듣는다. 이 지부장은 그 지부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나서 그 지부장의 판단을 청하면 지부장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인후,

“자 형제들! 찬송가를 먼저 부르고 시

작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찬송가 하나를 택하여 노래하기 시작한다. 혼자서 사절을 다 부른 다음, 다른 찬송을 택해놓고,

“자 하나 더 부릅시다.” 하고는 또 부른다. 이 노래가 끝날무렵 찾아온 사람중의 하나가 노래에 합세하게되고 둘째번 찬송가를 끝내고는, “하나 더 부릅시다.”고 또 다른 찬송가를 부르면 이번엔 찾아온 사람 둘이 다같이 노래하게 된다. 이들이 노래하는 동안 마음으로 크게 느끼고 노래를 끝내고는 마침내 “지부장님! 집으로 돌아가면서 평화로운 맘으로 둘이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루터의 노래를 힘있게 불러야겠다. 우리의 음성을 가사에 내포된 뜻에 조화되게 하자. 이 노래는 회중의 단결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늘 불리었고 이 멜로디의 운속에서 대중이 힘으로 결합됨을 본다.

반주자와 지휘자에게

이 노래는 박력을 갖고 부르라는 기호가 전체된다. 끝을 절도있게 아몰리고 올겐으로 하여금 강한 기백을 살리게 하라. 느림표를 너무 길게할 필요는 없다.

(27 페이지로)

금번 1967년도 제 2차 지방대회에 서울지역과 남부지역에 동원된 총 연 인원은 1,292명 성도 3,000을 헤아리는 한국지방부 대회에, 그것도 여섯 모임의 연인원이 1,292명 이라고 하면 출석률은 우선 불량이다. 모임의 평균 출석인수는 215명 다시 말하면 서울과 남부를 통하여 성도전체의 약 7%에 해당하는 숫자가 각 모임에 참석한 것이 된다.

편집부는 서울과 남부의 대회를 다시 “성도”들에게 중계하여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 및 서울과 남부 그

참석한 인원이 선교사를 포함해서 99명, 40여명의 선교사를 이 숫자에서 빼고나면 약 50명의 신권소유자가 참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50명의 인원이 많다 혹은 적다를 구태여 논할 것은 아니다. 이 50명이라는 출석수는 지방대회 사상 최초의 것이요 놀라움기 그지없는 현상이었다. 가히 한 지부에 나와야 할 신권소유자 수였다고 생각했다. 서울엔 5개의 지부가 있고 지역이 하나 있으며 더구나 인천지역도 참석하지 않았던가?

새로 장로정원회의 회장에 임명된

地方大會中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요 10 : 11)

어느 하나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현황을 전하고자 한다.

《서울대회》

대회에 첫 모임은 신권회였으며 1967년 5월 20일 오후 6時 선교본부 강당에서 막을 열었다. 스피커 제이 팔머 선교부장님을 감리자로 모시고 사회는 지방부장단의 한인상 형제가 맡았다. 90장 “아직 대낮 동안 힘써 일하라”가 끝난뒤 청운 지부장단의 이영환 형제께서 개회기도를 인도 하셨다. 이어서 지방부 서기의 출석 및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김석모 형제님 성북지부장 김종균 형제님 그리고 지방장단의 지영달 형제님등 여러분의 훌륭하신 말씀이 있었으나 참석한 전원은 끝내 저조된 출석률로 인하여 우울해야 했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으로써 잃은 한 마리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남겨진 하나가 잃어진 아흔 아홉을 그리며 외로워 하는 정경이었다. 폐회찬송은 75장 복음이 지닌 평화, 폐회기도는 동부지부장단의 이낙연 형제께서 맡아주셨다.

신권회 대회에서 반주는 정대판 형제, 지휘는 홍무광형제가 맡아 주셨

으며 폐회시간은 7시 25분이었다.

이어서 21일 오전 10시 제1총회가 있었고 선교 부장님의 감리, 지방 부장단의 지영달 형제가 사회를 맡았다. 삼청지부의 주덕영 형제가 개회 기도를 마친뒤 지방부서기가 출석을 조사했는데, 이 모임에 정시에 참석한 성도의 수는 432명으로 가장 높은 출석률이었다. 우선 흐뭇했고 전에 저조되었던 마음의 분위기를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날은 캘리포니아주 파모나 스테이크의 평의원 이신 에어형제 및 극동담당 건축위원이신 하딩형제 부부가 손님으로 참석하여 이채로웠다. 지방부장님과 선교부장님은 한결같이 영적인 말씀을 전해 주셨고 전례대로 선교부장님은 재미있는 우화를 한국어로 인용하셨다. 요지는 말은 쉽고 행하기는 어렵다는 것. 성북지부의 장기호형제님의 기도로 이 모임은 12시 15분에 폐회되었다.

인천지역이 준비한 점심으로 시장기를 메꾸고……오후 1시엔 제2총회 출석인원은 이상스럽게도 296명, 11장, 개회찬송이 끝난 뒤 인천의 김재승형제가 개회기도를 인도하셨다. 이 모임에서 가장 많은 연사가 동원되었으니, 하프만, 넬슨, 페리튼의 제 장로님을 비롯해서 팔머자매님, 하딩형제님, 한인상형제님의 말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호남 형제님이

방미 체험을 줄거리로하여 훌륭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의 아름다운 합창을 들을 수 있었고 발전하는 상호부조회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서부지부의 김과영 형제님이 폐회기도를 끝냈을 때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55분, 참석했던 성도들은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면서 부푼 마음으로 흩어져 갔고 서울의 안식일은 이렇게 해서 밤을 맞았다.

▶남부 대회◀

대체로 서울대회와 남부대회는 순서라든지 분위기가 비슷하게 마련인데 이번만은 그렇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상향회 연극이 따로 마련되어 저나름의 흥취를 돋구었지만 남부에서는 연극과 대회가 하나로 혼합된 행사같은 인상을 풍겨주었으니 말이다. 우선 전례없이 많은 서울의 형제 자매가 남부대회에 참석하여 따듯한 형제애를 나눌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거리가 가져다 준 연락의 차질로 인하여 집회시간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집회는 원활이 진행되었다. 우선 27일에 신권회전에 있었던 역원회에서 주일학교는 성구암송대회를 가졌고 부산동구가 일등을 하여 부상으로 찬송가(장년과 유년용)를 받았다. 신권회는 오후 5시 25분에 시작하여 6시 30분에 이어 세손스 형제께서 영적인 말씀을 전

해주셨는데 실 그것이 한국을 떠나는 작별 인사이기도 했다. 개회기도는 대구의 김상현 형제님이 폐회기도는 부산동구의 이강홍 형제님이 맡아주셨다. 출석인수는 82명. 이 모임을 끝내고 나서 형제들은 연극이 마련된 E. S. S 회관으로 달려가야 했다.

이튿날인 28일 오후 3시 이전에 집회를 끝내야하는 부담을 안고(서울로 되돌아가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제 1 총회가 9시 30분에 개회되었다. 동구지부장단의 송재현형제님의 개회기도로 시작되어 대구지부장단의 배성수 형제의 폐회기도로 끝난 이 모임에서 지방부장님과 선교부장님의 말씀은 언제나와 같이 성도들의 가슴을 메워주었고 이날은 특히 광주지역의 이재수 형제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전해주시었다. 길이 멀고 교통마저 불편한데도 대회에 참석해 주신 이재수 형제님과 그 외의 광주 성도들께 감사드린다. 이어 12시 30분부터는 제이 총회가 시작되었다. 차중환 지방부장

님이 사회해 주신 이 모임엔 178명이 참석, 대구지부장단의 박석도 형제가 개회기도를, 부산지부장단의 서현봉 형제가 폐회기도를 맡았다. 황종섭형제님, 팔머자매님, 지영달 형제님의 말씀에 이어 역시 이호남 형제님의 방미 체험기가 귀를 모았다.

이 모임에서도 역시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합창이 있었으나 사정상 부산동구가 단독으로 담당해야 했다. 2시 20분 모든 집회를 끝내고 지방부역원과 선교부 역원 그리고 연극요원들이 역으로 나왔을 때 대회에 참석했던 거의 모든 성도들이 역 구내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면서 “잠시동안의” 석별의 정을 나누었고 기차가 흠을 떠날 때는 새로운 임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을 보내는 섭섭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눈에 띄었다. 남부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을 깊게 마음에 아끼면서 점점 멀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역원들의 가슴에 사랑과 감사의 념이 지남을 엿볼 수 있다.

(편집실)

(25페이지 계속)

주려면 전력이나 기름이 소모되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물문의 개척자들은 많은 희생과 고통및 괴로움을 인내한 가운데 오늘날의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와 같이 주님 사업에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고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여,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임을 기억하고 “이 토대위에 세움을 입은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 하리라”(히 5:12)했으니 이 기초를 튼튼히 다짐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 다같이 최고의 영광인 해의 영광에 가도록 참된 신앙 생활을 합시다.

(필자 : 한국 지방부장)

일문 유치원 자랑

이 순 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동부 지부 내에 있는 일문 유치원은 금년에 창설된 겨우 한 살 박이 유치원임에도 전통깊은 모든 유치원 원아들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아름답고 따듯한 정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정원 40명의 원아들은 힘차게 뛰어 놀며 각기 그들의 재능을 연마시키고 있다. 3월 末에 개원해서 5월까지 불과 3개월 동안에 3어린이가 상패 4개를 받아와서 전통 깊은 이웃 유치원들을 놀라게 하였다. 상받은 3어린이는 다른 원아들 보다도 유난히 어리다는 점에서 더한층 귀여움을 받고있다. 4월 30일 유치원에서 제일 처음으로 상받은 어린이는 만 다섯살되는 김정민 어린이다. 김정민 어린이는 경희대 김민채 교수님의 차녀로서 유난히 초롱 초롱한 눈동자가 그의 총명을 말해주고 있다. 이 어린이는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 어린이의 스켓치 북에는 정말로 놀랄만한 그림이 가득 가득 채워져있다. 이 어린이의 그림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한국 소년 지도자 협회와 모나미 전국 학생 미술 전람회가 공동으로 주

최한 제 3회 미술전람회에서 입상의 영예를 차지 하였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5월 20일은 또다시 한국소년지도자 협회에서



사진 : 송양빈, 김정민원아와 어머니 그리고 배일문선교 부장과 일문유치원장 이순애 자매)

제45회 어린이날 기념으로 덕수궁에서 미술대회를 가졌던 대회에서 또다시 우수상을 획득했다. 그리하여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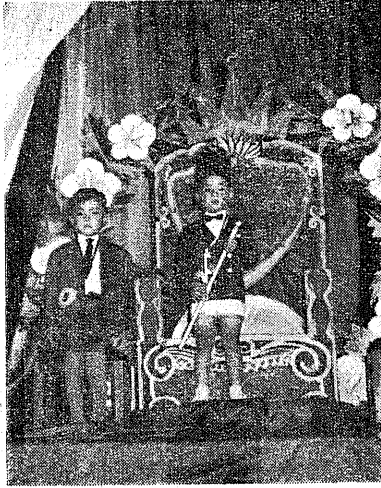


사진 : 왕좌에 앉아있는 허신원아

태리에 가게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위로해 드렸으며 또한 일문 유치원을 설립해주신 선교부장님 내외를 비롯하여 유치원 선생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다시 우리유치원의 자랑스런 원아를 들어보면 꼬마도령 송양빈 어린이다. 이 어린이는 5월 14日 대한 싸이를 경기연맹에서 주최한 제22회 전국 싸이클 선수권 대회에서 유아부 100米에서 1등을 해서 서울 운동장에 모였든 모든 사람들로 부터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으며 텔레비존을 보고 있던 전국 시청자들에게 일문유치원을 훌륭히 소개해 준바있다. 또한 일문 유치원에는 잘 생기고 예쁜 원아가 있다. 특히 지난 5월 29일에는 중앙 여론조사소 주최로 리틀 미스보이 선발대회에 우리 유치원의 허신이

라는 미남 도령이 여러 곳에서 모인 미남 미녀에게 튼튼함과 아름다움을 과시하였다. 시민회관의 무대에서 관객들과 심사 위원에게 드리는 인사말씀에 “저는 허 신 입니다. 올 해에만 4 살 5 개월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또렷 또렷하게 이어 가는 말솜씨에 관객들의 웃음과 귀여움을 독차지 하였다. 흰피부에 빨간 사과빛 두볼 앵두같은 두입술 초량 초량한 눈매 검은 눈썹 쳐 늘어진 두귀는 우리 유치원 女兒들에게서 인기가 대단하다.

가끔가다 엉뚱한 이야기와 유모스런 행동은 유치원 식구들을 웃겨주고 귀여움을 안겨다 준다. 진 선 미의 부문에서 진으로 뽑혀 영에스러운 왕관을 쓰고 목걸이를 걸고 상장을 들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으며 모든 관객들의 열광적인 박수는 꼬마 왕자의 탄생을 더욱 뜻깊게 하여주었다. 이날의 기쁨을 어머니께서는 어린이에게 좋은 경험이라면서 미남도령을 낳으신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이 보여졌다. 아기의 눈빛 같이 맑은 오월의 하늘은 우리유치원 원아들의 대외적인 행사에 영예와 즐거움을 안겨다 주었다. 보드라운 잔디위에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덩구는 천진난만한 동심에 언제나 밝고 깨끗하게 자라주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여러분의 성원과 편달을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필자 : 일문 유치원장)



멀리있는 성도들

김 태 선

미국생활 이제 2년으로 접어들지만 오래 전에 미국에 와서 경력을 쌓으신 우리 한국 물몬 선배님들을 대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치면 먼섬 나라 같은 곳에 떨어져 있어 고민지 저에겐 아직도 모든 것이 생소하기 만 하답니다.

이곳 The Church College 란 곳은 Laie 란 물몬 동네에 자리잡고 있는데 학생의 80% 이상이 會員이고 모든 교수가 교회 회원인지라 물몬 생활의 별난점이 아직도 쉽게 대조가되지 않는답니다. (저에게는 말입니다.)

이곳 교수 한분의 얘기를 하죠. 박사인 이 분이 라스 베가스에 있을 때는 자신이 물몬이라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는데 이곳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불평을 놓았답니다. 왜냐하면 라스 베가스에 있을 때는 자기 행동이 (금식하고, 십일조를 내고, 교회에 꼭꼭 참석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주위의 환경과는 아주 달라 유흥을 물리치고 주위 친구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어서 은근한 긍지 같은 것을 느꼈는데 이곳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착실한 회원들뿐이어서 랍니다.

이곳의 철학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여러 분이 아시는 것 처럼 생각 하는 것이 우리 동양과는 조금 달라요. 권층을 빼면 주저없이 썩 버리며 콕콕 내지르는 행동은 명백하고 직접적이랍니다. 그런 철학관 때문인지 존경받을 행동은 언제나 그 평가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인상은 같은 것이 별로 작용치 않는것 같읍니다. 그래서 담배 안피우고 술 안먹으며 교회에 충실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줄열하다는 식의 평은 받지를 않읍니다. 모두가 순결하고 정직한 것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쪼지 랍니란 분이 일자리를 처음 구할 때 “나는 2년간의 선교활동을 마친 물몬이다”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요일엔 정치같은 것은 논하고 싶지 않읍니다”라고 록 펠러의 제안을 거절하였던 용기를 우리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물몬인 것을 자랑으로 느끼십시오.

언제나 친절하셨던 서부지부의 김복경 형제님과 회원께 문안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編 輯 後 記

● “교사의 기회와 책임”이란 대판장 말씀은 교사로서 나를 준비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나를 돌이켜 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물몬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聖徒들을 대표해서 年次大會에 참석하고 神典結婚을 했던 이호남장노님의 보고는 많은 분들이 이미 들은바 있지만, 못다한 얘기를 실기로 했습니다.

청운지부의 이영환, 김성욱 두분의 물몬가족의 글은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의 글을 여러분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선교부장님의 “습속으로 본 한국”의 抄는 칙함을 떠난 외국인에게 비친 한국인을 아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해서 실었습니다. 한국민간인이라고는 단 혼자뿐인 회의석상에서 속기를 하고 후라쉬를 터뜨렸지만 수록해야될 막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함께 신지못함을 섭섭해 합니다.

● 앞으로는 “찬송가 소개”와 “유치원 차지”의 欄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 난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아름답게 자라고, 싹을 키우는 믿거름의 역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聖徒의 벗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信仰干證, 隨筆, 詩, 꿈트, 표지용 사진, 컷, 敎理質問等 어떤 것이라도 바라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얘기 등도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과 생활하면서 날로 발전되는 성도의 벗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M)

일 반 용

말일성도 용어집.....	10월
물몬이란	100월
물몬경(가족표지)	1, 200월
물몬경	150월
우경 프로그램.....	30월
효과있는 가르침을 위한 제언.....	50월
어린이 찬송가.....	100월
찬송가	50월

주 일 학 교 용

그리스도의 생애.....	100월
기이한 업적(상권).....	100월
기이한 업적(하권).....	100월
말일성도란?	100월
복음의 멧세지(하권) (상권 없음).....	10월
복음의 실천.....	100월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	100월
생활에서 본 회복된 교회의 원리	150월
성전중의 지도자.....	150월
우리들의 표준 성전(상과 하).....	10월
주님의 멧세이지.....	100월
주님의 멧세이지(교사 보조 교재).....	100월
회복된 교회의 역사	100월
이야기로 엮은 구약 성서.....	150월

상 향 회 용

강력한 지도력을 통한 인격강화	20월
민속 무용 교본	10월
봉사 이삭줍기반 공과	100월
상향회 역원 지도서.....	50월
상향회 선교부 지도서.....	50월
선택의 밤(봉이반 공과).....	50월
장미반 공과.....	150월
지도 원리.....	50월

신 권 회 용

아론신권회 지침서.....	20월
인간과 하나님.....	100월
집사 교문 지도서	150월
회복된 성교회.....	100월

유년 주일학교 용

우리의 종교생활(상권).....	100월
우리의 종교생활(하권).....	100월
주안에서 자라남.....	150월
복음안에서 자라는 어린이	150월

圖書案內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部

(所 住 錄)

宣敎本部 淸雲支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㉓ 3995
三淸支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㉒ 3596
東部支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4의19
		㉒ 1005
城北支部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의13
		㉒ 0744
西部支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의1
		㉓ 1208
大邱中央支部		대구시 삼덕동 2가 24번지
		㉒ 6659
釜山支部		부산시 등대신동 3가 95번지
		㉒ 1371
東區支部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의10

성도의 벗

1967年 6月 30日 發行

通卷 第 2 4 號

發行人 스펜서·제이·팔마

編輯人 洪 武 光

發行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本部

印刷所 寶 晉 齋 印 刷 所